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8호 【루계 제25211호】 주체105(2016)년 3월 8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에서 불타는 애국충정과 자력자강의 기상,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해나아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전세계 근로녀성들의 혁명적명절인 3.8국제부녀절 106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조선녀성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과시하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로력적위훈을 떨쳐가고있는 전체 녀성들에게 뜨거운 인사와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지금 온 나라 녀성들은 조선녀성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우리 녀성들을 값높은 삶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는 혁명적녀성운동의 생명선이다.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달려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녀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녀성해방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녀성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내세우시고 녀성운동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여 민족적떨시와 정치적무권리, 사회적불평등과 봉건적구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녀성들의 운명과 지위, 사상정신적풍모와 역할에서 근본적전환이 일어나고 이 땅우에는 녀성존중의 새 력사가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한평생 녀성들의 사회적해방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며 조선녀성운동사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오늘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척되고 승승장구해온 우리 나라 녀성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며 녀성들을 당의 혁명사상과 백절불굴의 신념을 체질화한 참된 혁명가로 억세게 키워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녀성들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의 손길은 뜻깊은 어머니날을 제정하도록 하신 은정어린 조치에도 어려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순결한 량심의 땀방울을 바쳐가는 군인가족들을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며느리들로 내세워주시며 그들모두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데도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피눈물로 응어리져있던 2012년의 3.8절에 우리 녀성들을 위한 희한한 음악회를 마련해주신 다심한 그 사랑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지구상에 수많은 녀성들이 살고있지만 우리 녀성들처럼 절세의 위인들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받은 녀성들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아래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우리 녀성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대단히 훌륭하다. 당과 혁명,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굳은 각오를 가지고 강성국가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해나가는 참된 혁명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애국헌신의 뿌리로 살고있는것이 우리 녀성들이다.

우리 녀성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으로 수놓아가는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는 조선녀성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길에서 추호도 물러설줄 모르는 신념과 의지의 장자들이 바로 우리 녀성들이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항일의 나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빨찌산녀대원들처럼,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충정의 일편단심을 수놓은 락원의 녀당원과 태성할머니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다 바쳐 받들어나가고있다. 불의의 정황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보위한 녀성보안원과 폭우와 큰물로 생명이 위급한 순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초상화부터 목숨으로 보위한 라선시 녀성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우리 녀성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올훈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라는 인생관을 지니고 과학탐구의 길을 목묵히 걸어가는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녀성과학자와 같이 당의 사상과 령도를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실천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녀성들이 이 땅 그 어디에나 있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와 운명의 피줄을 잇고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이런 녀성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이 수령이 열어준 길을 따라 드팀없이 전진하고 우리 당의 결심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것이다.

우리 녀성들은 불굴의 신념과 강의한 의지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혁혁한 위훈을 수놓아가는 전절한 혁명가들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 녀성들은 조국과 혁명을 위한 한길에서 동요하거나 주저앉은적이 없었다.

전화의 불길속에서는 유명무명의 수많은 녀성전투영웅, 녀성보잠이들이 전선과 후방을 지켰고 세상을 뒤흔든 천리마시대에는 녀성들속에서 기술혁신의 기수, 붉은 선동원, 새 기록창조의 주인공이 태여나 만사람을 경탄시켰다. 나라가 그처럼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 허리띠를 열때면 조여매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을 따라 쌀배낭이 아니라 거룩짐을 지고 나르며 사회주의조국을 떠받드는 밑거름이 되여온 우리 녀성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한 가정의 운명보다 조국의 운명,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녀성들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7일전투의 천아진군길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남편들과 함께 조국보위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군인가족들과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에서 조선녀성의 불굴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는 로력혁신자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앞장에서 분투하고있는 녀성지식인들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녀성교육자들을 비롯하여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하고있는 녀성들은 수없이 많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한생을 변함없이 조국의 뿌리로 사는 우리 녀성들의 순결한 량심의 땀방울들은 혁명의 피방울인양 우리 혁명의 맥동을 더해주며 조국을 새로운 비약과 번영에로 힘차게 떠밀어주고있다.

우리 녀성들은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대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는 참된 인간들이다.

가정을 따뜻이 돌보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보람으로 여기는것은 우리 녀성들의 고유한 풍모이다. 이 세상에 우리 녀성들처럼 강의하고 근면하며 고상하고 의리심이 깊은 녀성들은 없다.

오늘 우리 녀성들속에서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 내세우며 영예군인의 일생의 길동무가 되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친딸이 되여 혁명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는 미풍소유자들의 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얼굴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처녀어머니》가 되는것과 같은 미덕은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대가정을 가꾸어가는 우리 녀성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동지들을 친형육처럼, 집단을 자기 가정처럼 여기며 헌신하는 이런 훌륭한 녀성들이 우리 사회를 떠받들고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오늘 우리 녀성들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모든 녀성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심장깊이 새기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주체적녀성운동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절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녀성운동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은 주체의 녀성운동발전의 만년재보이다. 전체 녀성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한평생 부어주신 사랑과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고 승리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절사보위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주체적조선녀성운동의 생명선이다.

모든 녀성들은 항일의 나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귀감으로 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야 한다. 항일혁명선렬들이 피와 넋으로 새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또아 박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선군시대 녀성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난을 헤쳐나가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슴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한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선군의 길에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

지금 이 시각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며 우리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풀아오고있다. 전체 녀성들은 선군의 길에 가정의 행복도, 후대들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적극 내세우고 원군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정수리에 복수의 칼을 박는 심정으로 계급투쟁의 앞장에서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군인가족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남편들이 조국번영을 위한 생눈길을 뗀 앞장에서 용감히 헤쳐나갈수 있도록 더 잘 도와주고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머니, 친누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줌으로써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더욱 힘있게 떨쳐야 한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모든 녀성들은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자신들이 지켜선 혁명초소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농업전선의 녀성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세대 제1선참호,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울리기 위해 더욱 헌신분투해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녀성근로자들도 인민생활향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한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쏴올린 기세드높이 침단돌파전에서 녀성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며 교육, 보건, 체육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공화국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격전장들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녀성들은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공민적의무를 다해나가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고향땅을 사회주의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례의도덕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건전하고 고상하게 하여야 한다.

전체 녀성들은 승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혁명의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우며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책임과 도덕적의무를 다해나가야 한다.

녀맹조직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모든 녀맹조직들은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녀성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녀성들이 총정의 70일전투에서 혁혁한 위훈의 자욱을 새기는 로력혁신자, 시대의 공로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녀성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백두산대국의 크나큰 자랑이고 힘이다.

전체 녀성들이여,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의 높은 혁명성과 불굴의 영웅성을 힘있게 떨쳐나가자.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결사수호하기 위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보복열기 하늘끝에 닿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한 각계의 반향

원쑤격멸의 의지 치솟는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손명애는 이렇게 자기의 격분을 토로하였다.

오늘은 3.8국제부녀절이다.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녀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고있는 우리들이다. 그런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하고 원쑤격멸의 의지로 터져나갈것만 같은 이 가슴을 진정할길 없다.

우리의 핵이 미국이 제기하라면 제기하고 우리의 우주개발이 박근혜따위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녹거리흥정품인줄 아는가. 주체의 핵위성이 올려피진 보도에 접하여 지구를 들어올린것만 같은 환희속에 조선민족의 긍지를 느꼈고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온 우주를 얻은듯 한 기쁨과 자부심으로 잠 못 이룬 우리들이다.

오바마와 같은 검정이골목깡패의 겨드랑이에 붙어 전쟁수청이나 들면서 자멸을 재촉하는 박근혜년이야말로 정말 조선녀성 아니 세계의 모든 녀성들의 수치이다.

지금 피뢰역도가 온 세상 녀성들의 지주를 받으며 미국상전에게 찰거마리처럼 달라붙어 우리에게 도전해나서는데 사실 그것은 죽어가는 미친년의 가련한 마지막발악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의 매국역적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할 조국통일성전의 그 시각만을 고대하고있다. 그 단호한 징벌의 명령만 내려지면 우리 역시 한결같이 떨쳐나 늙다리마녀 박근혜를 조선녀성들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죽탕쳐버릴것이다.

봉화비누공장 지배인 신춘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한 자기 심정을 이렇게 터쳤다.

부정의의 군사적강권을 휘둘러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으려고 질질이 날뛰는 남강도 미제와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열어보려는 친하역적 박근혜년이 최후발악을 하고있지만 그야말로 쓴웃음만 나갈뿐이다. 그 따위 지랄발광에 우리가 파연 놀랄것 같은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고 조국수호의 성스러운 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각오로 충만된 우리 로동계급은 원쑤들을 모조리 징벌할 가슴후련한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

어질어질한 청와대의 로파는 제 처지나 똑바로 알고 미리감치 청와대를 떠나는 편이 나을것이다.

우리는 더이상 긴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두리에 굳게 공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모한 침략전쟁의 총포성을 도발자들의 참혹한 장송곡으로 만들어놓을 승리자의 배짱을 가지고 정의의 성전에 과감히 진입하였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와 만고역적 박근혜패당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불벼락을 안기자.

이것이 우리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농업성 국장 채경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우리 인민이 신념으로 선택하고 목숨으로 지켜가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감히 어느놈이 넘보며 탐욕의 아가리를 벌린단 말인가. 미국과 박근혜와 같은 동족대결광신자들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침해당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이 위협당하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 수수방관할 우리가 아니다.

이 행성에 인류가 생겨 아직까지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압살소동에 매달리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고 피를 물고 발광하는 극악무도한 도발자,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핵전쟁의 참화까지 들씌우려고 헤덤비는 미제와 그 주구 박근혜패당과 피의 결산을 할 시각은 드디여 왔다.

승리의 개가로 전쟁광기를 짓눌러버리자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기사장 윤정국은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멸적의 의지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기업소 전체 종업원들의 심정을 담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였다.

아마도 양코배기들과 박근혜역적패당이 살기가 정녕 싫어진 모양이다. 두더지처럼 제 굴에 들어박혀있어도 죽을지 살지 모를판에 이제는 날 죽여주시오 하고 우리의 멸적의 조준경앞에 그 추한 몰골을 완전히 드러냈으니 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은 무모한 도발에 매달리는 침략자들을 무자비한 불세례로 가차없이 징벌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단호한 립장을 대변한것이다. 올해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 최근에 진행된 새로 개발한 반땅크유도무기시험사격과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은 백두의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비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아직까지도 저들이 사지밖을 지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는 사실이다.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는것으로 저들의 목숨을 포기하는 문건에 도장을 찍은것이나 다름없다.

기회는 두번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다지고다져온 우리의 군사적위력을 총폭발시켜 불구대천의 원쑤들인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리고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 련합기업소안의 전체 로동계급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최대의 적동상태를 유지하면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최후명령을 기다리고있다.

식료일용공업성 국장 김영남은 원쑤격멸의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였다.

이 땅에는 수천만의 수령결사옹위의 총대가 있고 원쑤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의 총포성을 도발자들의 참혹한 장송곡으로 만들어놓을것을 선언한 백두산혁명강군이 있다.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자비한 심멸전이 개시되고 멸적의 함성이 천지를 진감할 때 기겁하여 나자빠질 미제침략자들과 허겁쓰레기같은 괴뢰군무리의 가련한 몰골이 눈앞에 보인다.

호전광들은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것이다. 최후의 반미결사전,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의 시각만을 고대해온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것이다.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은 이번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 저들의 처참길을 앞당겼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제 이 땅에 흐르는 시간은 도발자들에게 있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될것이며 원쑤들은 최후의 종말을 고하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원쑤들의 북침총포성을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로 짓눌러버리기 위한 오늘의 70일전투에서 반드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겠다.

본사기자

무모한 도발에 징벌의 불벼락을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지배인 손광철은 침략의 무모한 도발을 무자비한 징벌의 불벼락으로 맞받아치는것은 백두산대국의 불변의 대응방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년례적》이요, 《당어적》이요 하면 기만적인 허울마저 싹 내던지고 피에 주린 이리떼처럼 날치며 전쟁의 불뭉치를 마구 휘두르는 호전광들에게 선군의 총대맛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침략전쟁의 총포성을 도발자들의 참혹한 장송곡으로 만들어놓을것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은 우리 기업소종업원들의 심장을 원쑤격멸의 의지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있다.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고 미친듯이 덤벼드는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게 선제공격적인 군사적대응방식을 취할것이라는 대목이 정말 가슴후련하다.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고있는 미제, 동족대결에 피눈이 된 괴뢰역적패당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감히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건드리려고 발광하는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앞당겨 성취하려는것이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는 누구나 명사들이다. 우리 기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일일천추로 기다리던 최후결사전의 시각이 오면 세기를 두고 쌓이고 맺힌 증오와 복수심을 총폭발시켜 미제와 그 주구들을 이 땅에서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해 조국통일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멸적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평양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김 정 은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조선녀성의 존엄과 영예 빛난다

이 땅 어디에서나 녀성들에게 드리는 축하의 목소리가 들리여온다.

3.8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온 나라 가정들에서만이 아니라 일터마다에서 울려오는 이 인사말에 녀성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따뜻이 비껴흐르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충정의 70일전투를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맞는 3.8국제부녀절날 축하의 인사를 받는 이 나라 녀성들의 환한 모습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더욱 밝아지는듯싶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녀성운동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강화발전된 주체의 혁명적녀성운동입니다.》

3.8국제부녀절을 맞는 우리 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면 깊은 추억을 불러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3.8국제부녀절이였다. 누구나 이해의 3.8절을 두고 생각이 많았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슬픔이 가셔지지 않았고 원쑤들의 발악적인 전쟁도발소동이 극도에 이른 때에서.

하지만 이날 평양대극장에서는 3.8국제부녀절을 기념하여 음악회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녀성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명절을 성대히 기념하도록 사연깊은 음악회를 마련해주시였던것이다.

이날 공연장소의 분위기는 참으로 밝았다. 관람객의 절반은 연분홍색초대장을 가진 녀성들이였고 나머지 절반은 푸른색초대장을 받은 그들의 남편들이였다. 부부가 선녀, 선남이 되여 사랑을 약속하던 젊은 시절처럼 쌍쌍이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특색있고 이채로운 자리였다. 관람자들모두는 이 나라 녀성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주시며 이처럼 축복의 자리를 마련하시여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정에 대한 고마움에 젖어있었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음악회를 보는 감격으로 관람자들은 영광의 절정에 올라있었고 출연자들은 또 그들대로 행복의 무아경속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한껏 자랑하고 있었다.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녀성혁명가, 시대의 꽃으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끓어번지는 속에 진행된 음악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출연자들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면서 누구보다 환히 웃으시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뜨거운 열과 정으로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녀성들의 긍지에 넘친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지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사람들은 무엇을 새기였던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녀성들은 존엄높고 아름답고 억센 자기들의 긍지와 영예를 만방에 떨칠것이라는 확신이였다.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우리 녀성들의 운명개척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것은.

지난날 봉건의 멍에와 일제의 식민지철쇄에 얽매여 몸부림치던 우리 녀성들,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았고 녀자로 태어난것으로 하여 천대만을 받아야 했던 무권리한 존재가 바로 조선녀성들이였다.

이 가슴아픈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 우리 녀성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서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였고 그 성스러운 길에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당당한 주인공으로 성장할수 있었다.

항일대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하신 녀성중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중대의 탄생은 수천년동안 고질화되였던 남존녀비사상과 인습을 타파하고 녀성들의 정신적지위와 사회적지위를 실제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수평선상에 올려세운 하나의 사변이였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자기들을 혁명의 길에 내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었기에 항일의 녀투사들은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 용약 떨쳐나 남자들 못지 않게 손에 총을 잡고 흰눈이 뒤덮인 험산준령을 넘나들며 영웅적으로 싸울수 있었다. 총칼이 숲을 이룬 삼엄한 환경에서도, 절체고도의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를 모르고 싸우는 강의한 녀성혁명가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녀성해방위업을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기본목적으로, 주되는 투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남녀평등권실현이라는 세기에 길이 빛날 력사적공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

력사적인 당창립대회의 연단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지난날 아무런 권리와 자유도 없이 멸시와 천대만을 받아오던 녀성들을 봉건적신분관계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줌으로써 녀성들로 하여금 새 조국건설의 일익을 훌륭히 맡아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하신 음성이 오늘도 뜨겁게 들려온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이는 우리 녀성들의 운명전환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새 사회건설에 당당히 나서게 된 우리 녀성들은 이때부터 나라의 꽃, 사회의 꽃으로 떠받들리우게 되였다.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야 할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감당하게 되였다.

조선녀성,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볼 때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총진군길에서 녀성혁명가의 대부대를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떠올리게 된다.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녀성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에 우리 녀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 마음쓰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세계가 어리여있다.

로작의 자자구구를 읽어보느라면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라고,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다고, 녀성운동의 빛나는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부녀절을 크게 기념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녀성들을 높이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우리 녀성들을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믿어주고 내세워준 태양의 품이였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녀성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홍대를 틀어잡은 녀성군인들을 만나실 때면 친부모의 심정으로 군무생활의 구석구석을 돌보아주시고 조국보위초소에서 한몸 단단히 하고있는 녀성혁명가들이라고, 이런 훌륭한 녀성혁명가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사랑과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전투로 들끓는 대고조격전장들을 찾으실 때마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고있는 녀성들의 애국적소행을 더더욱 대견해하시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 격려속에 수령결사옹위투사로, 시대의 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자라난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들과 모성애의 모범을 보여준 어머니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불길이 타올랐고 온 사회에 녀성들을 존중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오늘 우리 녀성들의 존엄과 영예는 더욱 빛나고있다.

자식들의 인사를 받으며 우리 어머니들이 즐겁게 맞고 보내는 어머니날, 해마다 이날을 맞을 때면 온 나라 어머니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어머니들을 더없이 귀중한 존재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부풀어오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이 땅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얼마나 뜨거운 화폭들이 펼쳐졌던가.

한명한명의 감나무중대 녀성군인들과 사진을 찍으시느라 장시간 서 있어야 하시였지만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최상의 행복속에 울고웃던 녀성군인들의 모습.

어찌 이들뿐이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 녀성과학자, 녀성예술인, 녀성체육인들 아니 이 나라의 평범한 녀성들모두가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기여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지 않았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실록갈피들에는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녀성방직공들의 함숙을 지어주시고도 훌륭하게 꾸려진 생활의 보금자리에 든 주인공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시여 연회까지 마련해주신 감동깊은 사실을 비롯하여 녀성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신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다.

혁명의 한길을 따라 조선녀성들이 꿋꿋이 걸어온 지난 수십성상의 력사는 당과 수령,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고결한 충정의 력사인 동시에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조국을 결사수호하고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헌신의 력사였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이 나라 녀성들의 품성은 더욱 강의해지고 아름다와졌으며 혁명열, 투쟁열에 넘치게 되였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따라 단결하여 일떠선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이겨낼수 있고 창조할수 있다는것이 오늘의 70일전투에 펼쳐나선 조선녀성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라는 신념의 메아리가 3.8절을 맞는 맑고 푸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 메아리치고있다.

《녀성은 꽃이라네》, 《사랑하시라》, 《우리 집사람》 등 시대의 녀성찬가들은 우리 녀성들에게 드리는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싣고 온 나라에 울려가고있다.

녀성들이여,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더 밝게 웃으며 더 아름다와지고 억세여지라.

본사기자 림 정 호

우리 당의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조선녀성들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 만수대언덕에서 —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절세의 위인들과 녀성근로자들

잊지 못할 뜻깊은 기념사진

어버이수령님께서 온 금물이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는데 손에손에 꽃다발을 든 녀성로동자들이 우리 수령님을 에워싸고 기쁨과 행복의 큰 웃음을 짓고있다.

주체50(1961)년 4월의 잊지 못할 화폭을 담은 그 기념사진이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돌가루날리는 마천령의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검덕광산(당시)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

해방직후부터 오자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못 오고 복구건설도 하느라 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왔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꽃다발을 들고 달려온 녀성로동자들을 한품에 안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나날까지도 자주 추억하시며 보시던 사연깊은 기념사진은 반세기가 넘은 오늘도 수령과 인민, 절세의 위인과 우리 녀성들의 혈연적뉴대에 대하여 뜨겁게 전하고있다.

《봄향기》에 실려오는 사랑

8년전 온 나라를 감동시켰던 3.8절의 《봄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잊지 못할 그날 녀성들을 위하여 성대한 경축공연무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안의 녀성근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선군혁명령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연관람에 참가할 대상과 공연에 출연할 단체, 공연순서까지 짜주시며 세심히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누군들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랴.

하건만 주신 사랑 적으신듯 우리 장군님께서는 전체 관람자들과 공연출연자들에게 《봄향기》화장품을 비롯한 뜻깊은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3.8절의 《봄향기》, 그것은 자연이 주는 봄의 향기가 아니였다.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변함없는 충정을 바쳐가는 우리 녀성들을 가장 아름답게 내세우시려는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 넘치는 《봄향기》였다.

녀성공로자들과 함께

조선로동당창건 68돐경축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이 진행되던 때의 일이였다.

그날 공연장소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구봉령의 김성녀할머니를 비롯한 자강도의 녀성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이 격려해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속에 온 나라가 다 아는 공로자들로 자라난 이들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원수님께서 그처럼 많은 관람자들속에서 몸소 알아보시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니 녀성공로자들은 어린애들마냥 두발을 구르며 눈물을 흘리고흘린것이였다.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속에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삶을 빛내여가는 녀성들의 모습, 여기에 우리 조선녀성들이 무슨 힘으로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다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은혜로운 빛발아래 만발하는 꽃

충정의 70일전투가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우리는 3.8절을 맞이하였다.

이날따라 아침이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출근길에 나선 근로자들을 고무해주는 녀성들의 밝은 눈빛이 더욱 정답게 안겨든다. 창조와 위훈으로 들끓는 일터마다에서 우리 당을 받들어 충정의 구슬땀을 흘리는 녀성들의 숨결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진다.

70일전투에서 자기들의 재끗한 마음과 불타는 열정을 바쳐가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하고있는 우리 녀성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이 깊어진다.

태양의 빛발을 떠나 아름답고 훌륭한 꽃을 생각할수 없듯이 절세위인들의 품을 떠나 조선녀성들의 값높은 삶에 대하여 어이 말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녀맹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여 녀성들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시대의 꽃으로서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74(1985)년 5월 어느 날이였다.

이날 서북변의 한 도시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린 한 녀성이 있었다.

숙소에 이르시여서도 그 녀성에 대하여 잊지 못해하시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잘 키워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관심하신 그는 과연 어떤 녀성인가.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정방공인 그 녀성은 자식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침식을 현장으로 옮기였으며 전투장에서 밤을 밝히였다. 그는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제2차 7개년계획의 첫해분과제를 새해전투를 시작한지 45일만에 앞당겨 끝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게 한없는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며칠후에는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는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정넘친 가르치심을 주실줄 또 누가 알았으랴.

절세위인들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에 보답할 일념으로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한 결과 그는 드디여 6개월만에 자기에게 맡겨진 제2차 7개년계획과제를 완전히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정법한 정방공인 그가 발휘한 소행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고 제2차 7개년계획의 완수자라 하시며 로력영웅의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조선로동당원으로, 제2차 7개년계획의 완수자로, 로력영웅으로 자라난 그는 변정숙녀성이였다.

어찌 그에게만 차례진 행복이라 하랴.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만발하듯이 그늘 한점없이 비쳐지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혜빛이 있어 우리 녀성들은 생활의 꽃으로, 나라의 꽃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피여났던가.

남조선의 한 문인은 《평양의 꽃송원탄》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태양이 없는 화원을 생각할수 없다.

평양의 녀인들은 김정일장군께서 가꾸시는 인간사랑의 화원에서 꽃피고 다듬어지는 진짜미녀들이다. 이북은 장군의 사랑의 정치아래 꽃피는 인간화원이다.

남녀의 차별도 없고 빈부격차도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산다.

그중에서도 녀성들은 〈꽃〉으로 사랑받으며 행복을 구가하고있다.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활짝 피여나고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녀자는 꽃이 아니야〉라는 노래가 울려도 북에서는 〈녀성은 꽃이라네〉라는 노래가 경쾌하게 울린다.

장군의 녀성우대정치가 있어 이북녀인들은 그토록 희한한 녀성천국에서 진선미를 한껏 뽐내고있다. 한평양미녀가 〈저만 예쁘지 않아요. 우리모두가 다 예쁘고 아름다와요.〉라고 자랑했듯이 김정일장군의 사랑의 정치가 꽃피는 이북에서는 모두가 선녀이고 미인이다.》

오늘도 이 땅에는 태양의 빛발이 따사롭다. 그 빛발속에 녀성들은 시대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나고있다.

군력강화의 일익을 담당한 녀성혁명가들, 영웅조선의 효녀, 선군조선 하늘의 꽃인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선군조선의 딸찌산녀전사들.

어찌 이들뿐이랴.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오늘도 70일전투의 순간순간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여가는 사람들속에는 녀성과학자, 녀성일군, 녀성로력혁신자들이 많다.

이 땅우에 피여나는 꽃들을 정성껏 가꾸는 원예사와도 같이 사랑과 정을 끝없이 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이 있어 우리 녀성들은 더욱더 아름다와지고 그들의 향기는 한껏 풍기여 오늘의 총진군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혁

백두산위인들의 사랑속에서 꽃펴난 무수한 혁명일화는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재보이며 이를 통한 교양은 민능의 백과전서인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길이 전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혁명일화들이 계속 게재되는데 따라 독자들은 혁명일화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성장과정에 대하여서도 알고싶어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편집국은 《혁명일화와 더불어 꽃펴난 이야기》고정란을 설정하고 혁명일화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그후 성장과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가 더욱 숭엄하게 흐르고있는데 대하여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된다.

◁ 혁명일화와 더불어 꽃펴난 이야기 ▷

들 꽃 향 기

지금으로부터 20년전 7월 2일, 국경도시 신의주에서는 만사람의 축복속에 나어린 세 소녀에게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11살, 9살, 8살…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되여 그처럼 영광의 절정에 서게 되였는가.

며칠전 저녁무렵이였다.

질이가는 석양, 빨갛게 익은 산딸기들, 독특한 향기를 풍기는 들꽃들…

앞산에 올라 뛰여놀던 그들의 마음은 다문다문 핀 들꽃들에 끌리였다.

(선생님이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기쁠 때나 누구를 축복할 때에는 꽃송이나 꽃다발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했지. 가만 내일이 무슨 날이더라?)

세 소녀의 초롱초롱한 눈길이 모아졌다.

로화속을 헤치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에 희여진 6월 22일이라는 날자가 떠올랐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다음날 새벽에 김명희학생과 동생 김경희, 옆집에 사는 김성옥은 송이송이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장군님을 만나뵈옵고싶은 간절한 소원을 담은 소박한 들꽃묶음을 현지지도표식비앞에 정히 드리고 인사를 올리였다. 주변을 쓸고 또 쓸고 잔디속에 있는 작은 돌도 골라내면서…

그런데 바로 그날 현지지도표식비앞에 놓인 소박한 들꽃묶음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깊은 감동을 드릴줄 어이 알았으랴.

들국화, 은방울꽃이며 지어 토끼풀꽃까지 들어있는 들꽃묶음.

정성껏 엮은 들꽃묶음에서 점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소행의 주인공들이 어린이들일것이라는것을 헤아리시고 몸내 감동어린 어조로 일군들에게 어떤 학생들의 소행인지 알아보라고 이르시였다.

일군들로부터 김명희, 김경희, 김성옥학생들의 소행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특한 어린이들이라고 몸내 대견해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에서 꽃펴난 하나의 감동깊은 혁명일화였다.

자연의 꽃은 피면 시들어 그 존재를 상실하고 향기마저 잃는다.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가 곧 혈맥인 우리 조국에서는 어제날의 들꽃소녀들이 지닌 인간적향기가 날로 더 짙게 풍기고있다.

어제날의 11살 소녀가 혁명의 군복을 입고 초소에 선지 두해째 되던 해 1월 어느날이였다.

대소한의 명절 날씨속에서도 오래동안 부대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들꽃소녀가 부대에 있다는것을 아시고 매우 반가와하시며 몸소 불러주시였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랑하는 딸자식인양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뜨겁게 회억하시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외진 곳의 현지지도표식비앞에 희한한 꽃다발이 아니라 들판에 흔히 피는 꽃을 가지고 만든 들꽃묶음이 놓여있었던 일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상기하시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져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들꽃묶음을 놓은것을 보니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소행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녀병사는 끝내 북받치는 오열을 터치였다.

《그때 몇살이였나?》

《11살이였습니다.》

《11살, 지금은 몇살이냐?》

《18살입니다.》

머나먼 선군장정의 나날 잊은적 없는 그 아름다운 들꽃묶음에 대한 소중한 추억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며칠후에야 그 소행의 주인공이 바로 당시 11살박에 안되던 김명희동무와 그의 동생 그리고 한마을에서 사는 어린 처녀애라는 보고를 받고 철부지인 그들이 너무도 대견하여 그 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이 위대하고 사려깊은 사랑에 떠받들려 그들은 그때부터 온 나라에 들꽃소녀로 알려지게 되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 종파놈들이 쑬라닥거릴 때 어버이수령님께 커다란 힘을 드린 태성할머니와도 같이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 힘을 드린 들꽃묶음의 주인공들인 들꽃소녀,

이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마를줄 모르는 저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곧 그들을 평양에 초청하시여 최상의 혜택을 받으며 평양견학의 나날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여러차례에 걸치는 방송모임, 설맞이모임, 조선소년의 최고영예인 김일성소년영예상 수여…

(내가 뭐라고, 적의 화구를 막은 영웅도 아니고 한생을 다 바쳐 세상을 들썩하게 이름떨친 공로자도 아닌데…)

꿈만 같던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격정에 잠겨있는 그의 귀전에 《나는 명희동무가 앞으로 군사복무를 잘하여 훌륭한 병사가 되기 바랍니다.》라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왔다.

부대를 떠나신 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끝결에도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천만군민의 영원한 사상감정의 발현인 들꽃묶음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감정으로 그에게 《봄향기》화장품도 보내주시고 귀중한 보약까지 가슴가득 안겨주시였다.

우리 인민이 대대로 안겨사는 태양의 품은 들꽃소녀, 그 주인공들의 성장의 갈피갈피에 끊임없이 자양분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만년 높이 모시려는 인민의 일편단심이 끝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추억속에 들꽃소녀로 알려진 이들이 얼마전 평양비존무대를 통하여 다시금 온 나라 인민들과 뜨겁게 상봉하는 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였던것이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도당학교에서 공부하는 김명희, 우리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스며있는 력사의 땅에 삶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김경희, 김성옥,

위대한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걸으신 선군장정의 길우에서 꽃펴난 무수한 혁명일화들은 오늘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더욱 아름다운 후일담으로 뜨겁게 이어져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화원을 만첩으로 무성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량 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길에서 발휘되는 조선녀성들의 혁명성과 애국심

과학전선에 애국의 자욱을 새겨간다

국가과학원의 녀성과학자들을 만나보고

당의 부름따라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70일전투의 나날속에 맞는 뜻깊은 3.8절, 이날을 맞으며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과학전선을 지켜선 녀성전초병들을 찾아 며칠전 국가과학원으로 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땅에 마련된 모든 혁명의 전취물들과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우리 녀성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습니다.》

자력자강을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 맞이하는 이번 녀성들의 명절에 우리의 눈앞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철과 함께 공업의 왕으로 내세우신 기계를 연구하는 녀성과학자들이였다.

이런 류다른 생각을 안고 우리가 채굴기계연구소에 갔을 때 이곳 일군은 정말 잘 왔다고 하면서 30대의 한 녀성과학자를 소개해주었다.

이름은 허영금, 김책공업종합대학 광업공학부를 졸업하고 20대에 학위를 받은 그는 공기기계연구집단의 손꼽히는 과학자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중요대상의 제작에 들어갈 첨단설비의 하나인 쌍나사압축기개발과제에서 작업부에 대한 설계를 맡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를 보니 어떻게 되어 기계를 전공하게 되었는가 라는 물음이 저절로 나갔다.

잠간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집안의 막내딸로 자란 저는 기계가 전공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타고다니는 자전거수리도 자기 손으로 해본적이 없답니다. 산골군의 평범한 가정에서 나서 자란 저를 당에서 이렇게 키워주었는데 어떻게 해서나 제 몫을 다하고싶을뿐입니다.》

기계는 역시 중공업이여서 남자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는 일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에는 홍조가 피여올랐다.

인상깊은 그의 모습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기계공학연구소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더 많은 우리의것을 창조하기 위한 국산화열풍속에 전례없이 많은 일감을 안고 바삐 뛰고있는 이 연구소에도 뚜렷한 실적을 내는 녀성과학자들이 있었다.

유압공학연구집단의 김혜빙, 금랭주조종합연구집단의 안금숙동무들…

두 자식을 거느린 한 가정의 주부인 김혜빙동무에게는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집안에서는 물론 판록있는 유압기계설계전문가로서 연구소에서도 할 일이 참으로 많았다. 최근년간에만도 3련쿨란자봄프와 400t, 250t, 100t유압프레스들, 6MN수평판압출프레스, CNC판굴곡기, 카바이드로의 전극조종장치 등 지금까지 연구소가 개발한 덩치가 큰 수많은 기계설비들에는 유압장치부분에 대한 설계를 담당수행한 그의 높은 실력과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이곳 일군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설계뿐아니라 남자들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육중한 부분품들의 제작과 조립까지도 그의 손을 기다릴 때가 많다고 한다. 말 못할 사연도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고 탐구의 길에 지혜와 재능을 쌓그리 바쳐가며 그는 지난 25년동안을 묵묵히 걸어왔고 그 길에서 언제 한번 자기앞에 맡겨진 일을 남에게 미룬적이 없었다. 지금도 김혜빙동무는 당 제7차대회전으로 여러 현장들에서 요구되는 단조집게차, 40t프레스 등의 유압장치들에 대한 설계와 제작과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하여 불같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우리는 외국어실력에 있어서 단연 손꼽힌다는 안금숙동무도 만나보았다. 지난해에 과학기술전당의 자료기지구축과 관련한 사업에서 연구소직으로 제일 높은 실적을 낸 녀성과학자였다. 아무래도 녀성이여서 남자들보다는 크게 자랑할만 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도 우리의 취재를 거듭 사양하였다.

하나같이 소박하고 진실하며 그러면서도 억센 녀성과학자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번 70일전투기간에 그 어느때보다 더 노력하여 연구소가 당 제7차대회에 충정의 선물로 드릴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뜨거운 마음들을 엿볼수 있었다.

어찌 이들만이랴. 수십년세월 탐구의 길을 변함없이 걸고있는 생물공학분원의 나이많은 녀성과학자들도 있고 친수성자체세척피막제와 화강석오염방지를 위한 나노피막제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화강석으로 된 비들을 영구보존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한 나노재료연구소 전명순동무와 같이 한개 대상과제를 맡아 해제끼는 녀성연구사들도 많다. 그리고 공훈과학자, 박사인 환경공학연구소의 김혜림동무와 같이 한개 연구집단을 책임진 실장들도 있으며 중앙비섯연구소 소장 박사 리선희동무와 같은 일군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 값높은 인생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는 그들의 긍지높은 모습을 되새겨보느라니 얼마전 함흥분원에서 만났던 최교인민회의 대의원인 석탄화학연구소 실장 전선화동무를 비롯한 여러 녀성과학자들도 떠올랐다. 안아키워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고저 마음속고충도 조용히 웃어넘기며 집안일보다 나라일을 더 중히 여기는 이들의 애국의 마음은 그대로 미지의 세계를 헤가르는 지혜와 열정의 샘이 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창조의 얼때로 무르익고있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과학전선을 지켜선 이렇듯 훌륭하고 미더운 우리 당의 녀성과학기술전사들을 우리는 소리높이 자랑한다.

글 본사기자 김경철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함흥분원의 녀성과학자들

사회주의화원의 원예사들

3.8국제부녀절에 축하의 인사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아마 녀성교원들일것이다. 그도그럴것이 현재 공부시키고있는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형들, 맡은 초소마다에서 충정의 70일전투를 위훈과 혁신으로 빛내이고있는 끝없는 제자들로부터 축하의 인사가 끊임없이 전해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군시대 우리 녀성들의 혁명적이고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 생활기풍은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1년 365일중에서도 3.8국제부녀절은 녀성교원들에게 있어서 교육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가득 안아보게 하는 뜻깊은 하루이지만 오늘의 70일전투기간에 맞게 되는 이날은 더욱 못 잊을 날로 될것이다.

서흥군의 15명 교육자일가도 마찬가지이다.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이 교육자일가에서 녀성교육자는 12명이나 된다. 그들은 현재 고급중학교 교장, 부교장, 분교장, 유치원 원장, 청년동맹, 소년단책임지도원, 교원 등으로 사업하고있다. 이들중에는 수십년동안 교단을 지켜가는 공훈교원도 있으며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갓 졸업한 처녀교원들도 있다.

충정의 70일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는 오늘 이 교육자일가의 녀성교육자들도 새 교수방법창조와 교육조건, 환경개선사업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문무고급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업하는 조숙이동무는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려놓기 위해 분초를 다투며 뛰여다니고있고 신막고급중학교 교원 조은해동무는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을 창조함으로써 며칠전에 진행된 군적인 교수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근 70년간 교육사업을 해오면서 여러 학교와 분교들의 주변산들을 황금산, 보물산, 꽃동산으로 꾸려놓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문무고급중학교 은덕분교 분교장사업을 하는 공훈교원 조명이동무도 당 제7차대회전까지 분교주변을 하나의 식물원처럼 꾸려놓을 높은 목표를 세우고 3월에 들어와서만도 수많은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고있다.

이들의 일터는 서로 달라도 가슴속에는 하나의 지향이 있으니 그것은 맡은 학생들의 실력을 훨씬 높이는것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겠다는 불타는 일념이다.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고 키워가는 원예사와 같은 이런 훌륭한 녀성교육자들이 많기에 네 나라는 오늘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선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사람들은 온 나라에 랑랑히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를 더욱 의미심장하게 듣고있다.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확신해주며 이 땅에 넘쳐흐르는 사회주의향기, 배움의 금소리를 들으며 누구나 여기에 바쳐지는 녀성교육자들의 값높은 수고에 머리를 숙이고있다. 70일전투기간 뚜렷한 교육사업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낮에 밤을 이어 사색하고 탐구하며 사회주의화원을 가꾸어가는 원예사, 녀성교육자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 또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한경철

만리마의 기수가 될 일념안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은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로써 개척한 주체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보다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다.》

여기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조사직장현장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비단실뽑기작업이 한창이다. 방금 삶아낸 누에고치에서는 김이 문문 오르고있다. 배전공들이 이 고치를 자동조사기의 삭서가마에 붙는다.

길게 뻗어간 자동조사기를 오가며 실켜기에 여념이 없는 조사공들.

경쾌하게 울리는 《준마처녀》의 노래가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는듯 싶다.

참으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70일전투에서 충정의 자욱을 새겨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이들속에는 전투기간 작업교대를 스스로 연장하며 앞장에서 뛰고있는 공훈조사공 최경순동무도 있다.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공장에서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시대의 선구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정신으로 오늘의 70일전투에서도 혁명의 전세대답게 자신의 불타는 충정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에 간직하고 지난 수십년동안 정든 일터를 떠나지 않고있는 참된 로당원의 말은 우리 가슴을 뭉클 적셔준다.

70일전투기간 하루계획을 200%이상 수행하고있는 조사3직장의 정순애동무는 이렇게 말한다.

《당에서는 지금 모두가 만리마를 타고 달릴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저는 비록 두 아이를 가진 어머니이지만 전세대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당의 부름을 받들어 이번 70일전투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만리마시대를 창조해가는 혁신자들은 비단 정순애동무만이 아니다. 조사3직장의 김정향, 박일주, 조사4직장의 김혜영동무들도 오늘의 투쟁에서 만리마의 기수가 되겠다고 하며 주야간 전투를 벌려 매일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그렇다. 전세대의 정신은 이렇게 계승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따뜻한 품속에서 성장하며 자랑찬 력사만을 연혁에 새겨온 이곳 녀성근로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은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글 전혜영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70일전투장에 새겨가는 아름다운 모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충정의 70일전투장마다에서 전례없는 로력적위훈이 창조되고있다.

미더운 녀성교육자들

직업적혁명가, 녀성혁명가로서의 본분을 지켜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높은 실적으로 빛내여가는 녀성교육자들속에는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육자들도 있다.

과학연구활동으로 수도시민들의 먹는물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는 도시경영대학 강화장 오정옥동무, 개건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김일성경기장의 음향 및 조명보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는 건축대학 강화장 교수박사 천선옥동무, 과학기술전당의 판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자들과 함께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국토환경보호대학 교원 박사 부교수 장경주동무, 전자깜의안들을 70일전투기간에 완성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학부를 대학의 본보기단위로 이끌어가고있는 건설공학부 학부장 박사 부교수 김명희동무 그리고 건설재료학부 강화장 오은경, 건설기계공학부 교원 박사 부교수 정선희동무를 비롯한 이 대학 녀성교육자들의 하루하루는 열정과 탐구의 나날로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학생들을 쟁쟁한 실력가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녀성교육자들의 헌신적인 모습도 언제나 교원들과 학생들의 깊은 존경과 감동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자랑찬 결실

사회과학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 소장 박사 부교수 김인숙동무는 충정의 70일전투의 앞장에서 연구집단을 이끌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엄마전 전 15권으로 된 도서집필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국보적인 가치를 가지는 도서를 세상에 내놓을 충정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지난 수년간 피타는 탐구와 사색, 고심어린 노력으로 날과 달을 이어온 소장 김인숙동무와 녀성연구사들인 한경림, 홍은주동무를 비롯한 연구소과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마침내 자랑찬 결실을 안아왔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내용별로 과학리론적으로 종합체계화함으로써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우리 민족의 제일가는 국보로 후세에 길이 전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장군님의 위대성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게 된것이다.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김인숙동무와 연구집단은 지금 당 제7차대회전으로 총론에 대한 집필을 끝내기 위한 철야전투를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불같은 애국의 마음

북창의 대동력기지에 가보면 스스로 이곳으로 달려와 석탄부리기전투를 도와주는 수백명 녀맹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몇년전부터 군의 녀맹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인 전력생산기지로 달려와 석탄부리기전투를 힘있게 도와나서고있다.

나라의 전력생산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발전소로 들어서던 몇해전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군의 녀맹원들이 부린 석탄량은 수십만에 달한다.

이 놀라운 수자속에 남모르는 애국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있는 군내녀맹원들의 땀의 무게가 실려있다.

7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북창의 대동력기지로는 석탄을 실은 화차들이 더 많이 들어서고있다. 군의 녀맹원들은 발전소구내에 울려퍼지는 기적소리를 시대와 조국의 부름으로 새겨안고 돌격대를 무었다.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일군들만이 아닌 군안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축하속에 이들은 새로운 진군의 보폭을 내짚었다.

본사기자 강명천

1.5배의 증산실적 기록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신의주견직공장의 로동계급이 70일전투시작부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특히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투목표를 1.5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공장의 녀성기능공들이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70일전투가 시작된지 한주일만에 열처리기대전방지장치가 새로 제작도입되여 지난 시기 편직천생산과정에 흔히 나타나군 하던 정전기현상을 완전히 극복할수 있게 되였다. 결과 생산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편직천재단 및 제품가공속도는 종전보다 1.2배이상 높아졌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편직제품들에 임의의 도안을 새길수 있는 날염기의 제작과 면직외선에 의한 열처리기의 전력소비량을 절반이하로 줄이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제직1종합대환기작업반에서 하루에도 수백개의 편직바늘들을 책임적으로 선별하여 설비들의 만가동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가공종합작업반 초급일군들은 혁신자들을 따라앞서고 뒤떨어진 종업원들을 이끌어주며 단합된 힘으로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재단작업반의 녀성종업원들도 오늘의 70일전투에서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맡겨진 생산과제를 평균 125%, 최고 14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종업원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속에 공장의 전투기록장에는 날마다 혁신의 새 소식들이 기록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우리의 엄숙한 경고에 도전해나선 침략자, 도발자들은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힘으로 짓밟기 위한 날강도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의 군사적행동이 끝끝내 개시되였다.

그것이 바로 3월 7일부터 강행되고있는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이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지금까지 적들이 넘볼처럼 외우던 《연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벌리는 가장 로골적이고 가장 악랄한 사상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이다.

더우기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보려는 불법무법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가 조작된데 이어 강행되는것으로 하여 우리 천만군민이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포악무도한 침략전쟁소동으로 락인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거의 모든 3대전략핵타격수단들이 순차적으로 남조선지역에 전개되고 살인악마의 무리로 악명을 떨친 미륙해공군의 특공대작전집단과 강습상륙집단까지 이 연습에 투입된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엄중한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목적이 감히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전략적요충지들을 불의에 점령하기 위한 기습상륙작전, 우리의 핵타격수단들에 대한 선제타격작전 등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의 실전가능성을 확정하는데 있다고 내놓고 광고해대고있는것이다.

정세는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사실은 미제와 괴뢰패당이 우리의 자위적조치인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정세를 격화시켜온것이 결국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데 있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침략자, 도발자들의 핵전쟁광기에 철추를 내리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관카리결전이 시작된 엄숙한 시점에서 미제와 괴뢰패당에게 우리가 이미 천명한 강력한 물리적대응을 포함한 전면대응조치가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침략자, 호전광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작전전역들에 실전배비되여 임의의 시각에 쏘아버릴수 있게 준비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탄의 보복세례를 면하려거든 그리고 계렬생산되여 예비포병부대들에까지 장비된 각이한 구경의 방사포탄의 불바다에 타죽지 않으려거든 서불리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와 민족의 특등재앙거리인 박근혜역적패당은 남조선은 물론 일본과 태평양지역, 미국본토에 있는 침략의 모든 본거지들이 우리 혁명무력이 보유한 각이한 타격수단들의 사정권안에 들어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해보려는 적들의 가소로운 군사적광기에 대처하여 기존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방식으로 전환한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작전집단들은 놈들이 움찍하면 그 즉시 발견하고 후회할 순간도 없이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먼저 가할 만단의 선제타격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상식도 리성도 통하지 않는 미제와 박근혜패당과는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내린 최종결단이다.

우리의 정의로운 반미최후대결전, 조국통일성전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모든 조선동포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도 강력하고 드세찬 반미, 반전, 반박근혜투쟁으로 합세해나서게 되여있다.

일촉즉발의 핵화약고우에서 무모하게 강행되는 적들의 북침전쟁소동을 수수방관한다면 우리 민족이 무사할수 없고 세계가 핵전쟁참화를 면할수 없다.

우리의 엄숙한 경고를 새겨듣지 않고 우리의 존엄과 제도에 도전해나선 날강도 미제와 또다시 《응분의 대가》를 톡톡히 추악한 매국역적 박근혜패당에게 치례질것은 가장 비참한 패배와 수치스러운 종말뿐이다.

최후의 승리는 자주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정의의 반미전면대결전, 조국통일성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주체105(2016)년 3월 7일
평 양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주체철생산이래 최고수준 돌파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종전보다 2배이상의 실적 기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전당, 전군, 전민을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주체의 쇠물폭포로 당중앙을 절사옹위할 일념으로 생산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첫 쇠물을 뽑은이래 지난 1일 종전보다 2배이상에 달하는 최고생산실적 기록!

70일전투에 진입하여 지금까지 일전투목표를 평균 115%이상 넘쳐 수행!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나날이 확대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해 폭풍노도쳐 내달리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해주는 자랑찬 결실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용광로직장에서는 선철증산의 중심고리를 확고히 틀어쥐고 생산정상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있다. 용해공정에서 농화물조절을 과학적으로 하고 필요한 산소량을 원만히 보장하면서 선철용해조작공정을 높은 단계에서 완성해나가고있다. 전투현장마다에서 주체철증산성과로 승리의 5월을 맞이하기 위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선철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용해공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용해조작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용해시간을 단축하고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종전보다 훨씬 늘이고있다. 조종실의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경제강국의 대문을 열어제낄 일념으로 쇠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용해조작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조직하고있다.

선행공정을 맡고있는 원료공급작업반의 로동계급도 최후발악하며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을 용광로에 처넣을 멸적의 기상으로 원료, 연료배합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있다.

조건은 어렵고 애로와 난관이 많지만 이곳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철생산체계를 더욱 완성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선철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으로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현지보도반

3만 수천t의 유기질비료 증산

세포군에서 최근 6일동안에 계획외에 3만 수천t의 유기질비료를 더 생산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70일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가운데 군에서는 지난해보다 거의 한달 앞당겨 이미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포전에 실어내게 되였다.

군일군들은 이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수만t의 유기질비료를 더 생산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혁신의 불을 달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후정, 북평축산농장 농업근로자들이 앞장섰다. 그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진행하면서 매일 1t씩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자랑을 떨쳤다. 약수, 대문축산농장을 비롯한 모든 농장에서 앞선 단위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군적인 유기질비료생산목표가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성철

3.8국제부녀절을 맞는 혁명의 꽃, 사회의 꽃인 우리 녀성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70일전투의 혁신자, 그 대오속에 우리도 있다

봄이 왔다.

맑고 푸른 하늘에서 따사로운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리고 산과 들마다에 파릇파릇 새싹이 움터나는 환희의 계절, 꽃피는 계절이 왔다. 그러나 화창한 이 3월 우리는 자연의 꽃보다 먼저 이 땅의 매 사람, 매 가정, 매 일터에 더없이 따뜻한 온기와 활력을 부어주고 생활의 향기가 되여주는 나라와 시대의 꽃, 가정의 꽃에 대해 소리높이 자랑한다. 뜻깊은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사회주의만복이 꽃펴나는 이 땅에서 우리 녀성들이 더 밝게 웃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온 나라 인민이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예로부터 녀성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일러왔다.

하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녀성이 가장 아름다운 녀성인가. 우리 시대 녀성들은 무엇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의 사랑속에, 집단과 동지들의 축복속에 떠받들려 값높은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인가.

오늘 우리 인민은 당 제7차대회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력사적인 70일전투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그 자랑스러운 혁신자들의 대오속에는 우리 녀성근로자들도 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언제 한번 젖은 손이 마를새 없지만 한가정의 주부, 어머니로서 뿐아니라 집단과 동지들이 자랑하는 위훈의 창조자, 선군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인생의 값높은 자욱을 새겨가는 우리 녀성들,

공장과 농촌, 탄광과 발전소 건설장 지어 과도세찬 날마다우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운것인가.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어떤 녀성이 가장 아름다운 녀성인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굳이 증산의 동음높은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전투장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는다. 불꽃튀는 전투의 나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 혁신과 위훈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찌 그런 곳에서만 꽃펴난다고 하랴.

아직은 모든것이 어둠속에 잠기고 이따금 대동강안에서 물오리떼의 깃치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이른새벽 어디선가 류다른 음향이 고요한 대기를 흔든다.

사르륵, 사르륵…

먼동이 터올무렵이면 수도의 거리마다에서 어김없이 울리는 음향이다. 그 음향의 주인공들중의 한사람인 중구역도시시설관리소 도로관리원 최순희동무, 30대의 젊은 시절 자진하여 도로관리원이 된 그는 70고개를 가까이한 오늘도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빛내이며 도로관리에 깨끗한 량심과 진정을 바쳐오고있다.

그만이 아닌 현옥란, 박순희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녀성도로관리원들이 지난 수십년세월 남들이 단잠에 든 이른새벽이나 깊은 밤에도, 눈보라일고 비바람휘몰아치는 궂은날에도 누가 보진말진 자기가 맡은 구간의 도로를 정성껏 관리하며 애국의 삶을 꽃피우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몇해전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는 수도의 정범한 도로관리원들에게 온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으며 30여년세월 당과 조국을 받들어 성실하게 일해온 선천군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 강동명동무를 참된 애국자로 온 나라 인민앞에 내세워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오늘 수많은 녀성도로관리원들이 70일전투의 나날 나라의 도로를 지켜, 심심산골의 이름없는 명길을 지켜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바쳐가고있다.

도로관리원들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남모르는 일터에서 전투의 날과 날을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녀성들중에는 금은보화가득한 전설의 나라인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때로는 인적없는 산중에서, 때로는 찬바람스며드는 벌막에서 인생의 귀중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국가자원개발성 증앙측량단 녀성측량중대원들도 있다.

《우리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국의 지도를 그리고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일에 자기를 바치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40대에 이른 오늘까지 오랜 세월을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 보람찬 투쟁에 바쳐가고있는 녀성측량중대 중대장 정은희동무 한사람만의 심정이라고 하랴.

첫 녀성측량중대가 조직된 1960년대부터 지난 수십년세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수많은 녀성들이 집을 떠나 연약한 두어깨에 측량기를 걸머지고 높은 산과 험한 령, 사품치는 강을 넘고헤치며 어머니조국의 부강한 래일을 위해 값높은 삶의 자욱을 아름답게 수놓아왔다.

당 제7차대회에로 향한 력사적인 70일전투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오늘 최순희동무나 정윤희동무는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영웅적소행이나 위훈의 주인공은 아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한 일이 있다면 남들의 눈에 선뜻 띄지 않는 일터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그리고 량심적으로 해온 그것뿐이다.

그러나 기쁨과 환희속에 명절을 맞는 즐거운 시각에도 찬바람부는 도로에서, 진눈깨비날리는 깊은 산중에서 누가 보진말진, 알아주진말진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가는 이런 녀성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인간, 가장 아름다운 녀성들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누가 보진말진, 알아주진말진!

우리 사회에서는 바로 이것이 아름다움중에서도 제일가는 아름다움, 위훈중에서도 제일 큰 위훈으로 되거늘 사람들이여, 70일전투의 혁신자, 그 대오속에 녀성도로관리원들과 녀성측량대원들처럼 부강조국건설의 밑뿌리로, 초석으로 사는 수많은 녀성들이 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그리고 뜻깊은 이날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제일 큰 꽃다발, 가장 향기로운 꽃송이를 드리시라.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는 이 땅에서 그들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녀성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불굴의 투사, 시대의 꽃으로 더 아름답게 피여나기를 바라며 3.8국제부녀절의 이 아침 조국은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 뜨거운 축복의 인사를 보낸다.

그대들 앞길에 언제나 따뜻한 봄날, 행복과 영광만이 있으라!

본사기자 리남호

녀성영웅들은 말한다

값높은 삶의 본분—당의 참된 딸

뜻깊은 3.8절을 맞이할 때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으시여 우리 군인가족들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현지시찰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3.8절을 맞이하는 항공군부대 가족들에게 온정어린 화장품을 안겨주시고 우리 당의 70년력사를 경축하는 성대한 군중시위에 우리 군인가족들도 불러주신 원수님, 이 나라의 많고많은 녀성들중에서도 우리 군인가족들이 한 일이라면 더 크게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원수님의 그 따뜻한 품속에서 나와 같이 평범한 녀성도 영웅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나의 가슴에 빛나는 영웅메달을 쓸어볼 때면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당원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고 자신의 인사를 전해주라고 하시며 온정어린 생일상까지 보내주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지금도 나의 귀전에는 군인가족들이 혁명의 작식대원으로서의 본분을 더 잘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비록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어도 100여명의 아이들을 서슴없이 품어안던 그 나날처럼 순결한 량심과 의리, 피타는 헌신과 노력을 다 바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군인가족의 본분과 당의 참된 딸로서의 의무를 다해나가겠다.

로력영웅 리명선

애국과학자의 영예 빛내여가리

이 나라의 과학자라면 누구나 지니고싶어하는 가장 값높은 영예가 나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다.

애국과학자!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했을뿐인 평범한 녀성과학자에게 안겨주신 이 영예야말로 그 어떤 명예칭호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태양의 축복인것이다.

새겨볼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펏펏치 못한 과거로 하여 곡절을 겪던 아버지를 당을 믿고 따라온 애국자라고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믿음이 있어 나는 마음속에 한점 그늘도 없이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과학자로 자라날수 있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야 하는 과학의 길에서 힘들세라, 지칠세라 힘과 용기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영웅으로 성장했으며 조국을 위해 바친 과학자의 량심을 그 어떤 세계적인 발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온 나라가 다 아는 애국과학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 세상 그 어느 과학자가 이런 영광, 이런 영예를 받아안은적 있었던가.

지난날 시대와 사회밖에서 버림받던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역군으로 내세워주시고 영원히 지지 않는 나라의 꽃으로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있어 나만이 아닌 온 나라 녀성들의 참다운 삶이 꽃펴나는것 아니랴.

고마운 그 품을 받들어 한생의 끝까지 애국과학자의 본분과 의리를 다해나가며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겠다는 신념의 맹세가 3.8절의 이 아침 더더욱 굳어진다.

로력영웅 후보원사 최승록

인민이 안겨준 고귀한 칭호

삼마뻐스사업소 로동자 김선희동무

사동—대동문뻐스로선을 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속에 차번호 《평양 40—1211》호 차장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나 없다.

하지만 그 뻐스의 차장인 삼마뻐스사업소 사동대대 로동자 김선희동무를 두고 사람들은 《우리 차장》이라고 웃음속에 정을 담아 부른다.

출퇴근길에 잠간 만났다 헤여지는 사람들이 즐겨부르는 류다른 그 부름속에 30여년세월 수도려객운수부문에서 누가 보진말진 묵묵히 일해온 한 녀성로동자의 한생이 어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뻐스차장이란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하지만 새벽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명절날도 생일도 사람들이 붐비는 뻐스안에서 보내는 사람들, 추운 겨울밤 운행을 마치고도 고장난 뻐스가 있으면 운전사와 함께 차디찬 부속품을 매만지며 밤을 새우는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김선희동무의 생활이 바로 그런 남모르는 수고속에 흘러왔다. 힘겨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떠날수 없었다. 수십년세월 고정된 로선을 끊임없이 돌고돌며 그가 본것이 무엇이었던가.

비약의 폭풍을 안고 날마다 변모되는 수도의 모습을 그는 30여년세월 달리는 뻐스의 차창너머로 보아왔다.

날마다 첫 운행을 시작할 때면 자신들에게 안겨지군 하는 온정어린 빵과 우유가 천만근의 식량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고 당에서 보내준 새 솜옷을 입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우리 차장이 더 환해졌다고 기뻐하던 손님들의 모습이 혈육처럼 느껴져 힘들어도 보람넘친 일터였고 떠날래야 떠날수 없는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였던가.

70일전투가 시작된지 며칠 안되였던 어느날 김선희동무는 출근길에 오른 손님들에게 《로동신문》에 실린 사설 《모두다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의 중요내용을 실감있게 해설해주었다.

그때 그의 해설을 들은 평양연극영화대학의 어느 한 교원은 말했다.

수십년전 대학생교복을 입고 등교길에 오를 때 낯을 익힌 차장처녀, 머리에 흰서리내린 오늘까지도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우리의 출근길을 지켜주고 당정책을 되새겨주는 김선희동무와 같은 차장이 한두사람이 아니였다고.

그렇다. 인민들이 정을 담아 부르는 《우리 차장》은 결코 김선희동무 한사람만이 아니였다.

이 노래는 천리마시대 녀성들의 영웅적투쟁과 혁명적랑만을 훌륭히 반영한 예술영화 《정방공》의 주제가이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천리마선구자의 노래》는 오늘도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조선녀성들의 힘찬 진군의 발걸음소리로 우렁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녀성특유의 긍지와 자부심, 민족적자존심과 영예감, 끝없는 행복감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고수하며 투쟁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던 1960년대초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예술영화 《정방공》을 만들어 내놓았다. 해방전 치욕과 학대속에서 억눌려살던 녀성로동자 옥림이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나라의 어엿한 주인이 되여 로력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공장 지배인으로 성장하는 파정을 담은 영화는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투쟁과 생활을 감명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전국각지에서 영화와 주제가에 대한 실효투쟁이 널리 벌어졌다.

조선녀성들이 부르는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로 세기를 주름잡아 힘차게 전진하는 내 조국의 억센 기상을 형상한 노래들가운데는 우리 녀성들이 몹시 사랑하며 즐겨부르는 《천리마선구자의 노래》도 있다.

천리마대고조시기 붉은 선동원의 전형이였던 리신자, 우리 수령님께서 참된 혁명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로 높이 내세워주신 길확실을 비롯한 우리 녀성들의 심장속에서는 《천리마선구자의 노래》가 삶과 투쟁의 주제가로 힘차게 울렸다. 최장대를 억세게 틀어쥔 강선의 용해공들이 노래 《우리는 천리마라고 달린다》, 《강선은 천리마의 고향》을 부르며 천리마선구자로 솟구쳐오를 때 우리 녀성들은 《천리마선구자의 노래》를 부르며 영웅정방공으로, 바다를 정복하는 영웅선장으로, 영웅선동원으로 자라났다.

조선녀성들은 당이 결심하면 못해낸 일이 없었고 당이 구상을 펼치면 천리마를 타고 내달렸다.

위대한 천리마시대의 한복판에서 조선녀성들이 어떻게 성장하였으며 당과 수령의 부름에 어떻게 한몸 내대였는가를 노래 《천리마선구자의 노래》는 력사의 화폭으로 새겨주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치던 1990년대에 우리 녀성들은 《준마처녀》의 노래를 부르며 강성국가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갔다.

105리의 머나먼 마라손주로를 맨 앞장에서 내달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노도쳐 진군하는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정성옥영웅, 시련을 뚫고 강계정신을 창조한 자강도의 녀성들,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강의한 조선녀성들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받아안은 김철의 녀인들, 들끓는 협동벌들과 생산의 동음 드높은 일터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강성국가건설의 터전을 힘차게 다져온 조선녀성모두가 노래 《준마처녀》의 주인공들이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나래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노래를 부르며 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고 있다.

선군조선의 빨찌산녀전사들인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은 새로운 축구신화를 또다시 창조하기 위하여 훈련길을 쉬임없이 달리고있으며 영웅조선의 효녀, 선군조선 하늘의 꽃인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은 성스러운 조국수호의 항로우에 충정의 비행운을 아로새기고있다. 이제 그들뿐이랴. 주체조선의 힘과 기상을 하늘땅에 펼쳐가는 과학자들의 대오에도 녀성들이 서 있다.

조선녀성들의 존엄과 지위를 하늘높이 올려세우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는 이제 또 얼마나 아름답고 희한한 녀성들의 노래가 수많이 울려퍼지게 될것인가.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전세대 문학예술인들처럼 영원한 사랑을 조국에 바쳐가는 조선녀성들의 훌륭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새 노래들을 더 많이 창작, 창조함으로써 70일전투의 나날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주체문학예술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것을 인민은 굳게 믿고있다.

본사기자 리수정

70일전투의 앞장에 선 녀성로력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동보호물자분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3.8국제부녀절 106돐기념
전국가두녀성들의 체육경기 진행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오늘의 총진군길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우리 녀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3.8국제부녀절 106돐을 맞으며 전국가두녀성들의 체육경기가 수도 평양에서 있었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경기에는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선발된 36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체육경기를 통해 3.8국제부녀절을 보다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하여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는 선수선발과 경기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때구, 탁구, 태권도, 윷놀이 등 다채로운 체육올림픽오락종목들이 펼쳐진 경기장은 선수들의 충천한 기세와 희열, 열기띤 응원으로 련일 흥성이였다.

선수들은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련마해온 체육기술과 집단의 조직력, 단결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련속적인 공격으로 통쾌한 득점장면을 펼쳐보인 구기종목경기들도 볼만 하였지만 병뚜고 외나무다리건느기를 비롯한 유희오락경기들은 더욱더 이채로왔다.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장내를 들었다놓는 응원은 경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경기장은 녀성들의 혁명적랑만과 기백으로 끓어번지였다.

체육경기에서는 함경북도가 종합 1등을, 평양시, 황해남도가 각각 2등, 3등을 쟁취하였다.

필승의 기상으로 약동하는 온 나라에 드세찬 체육열풍, 애국의 열풍을 일으키며 인민체육의 새 화폭을 펼쳐놓은 3.8국제부녀절 106돐기념 전국가두녀성들의 체육경기는 당의 령도따라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더 높이 떨쳐갈 우리 녀성들의 앙양된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로므니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로므니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로므니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리명두동지가 임명되였다.

◎ 방문기 ◎

첫 애기어머니작업반이 태여난 곳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구내는 넓었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락아소를 찾을수 있었다.

마침 락아소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퇴근시간을 맞이하고있었다. 그런데 락아소문을 나서는 사람들속에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영문을 몰라하는 우리에게 한 할머니는 범상히 대답하였다.

《70일전투에 나선 우리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돕고싶어서요.》

락아소보육원들의 출퇴근시간이 달라졌다고 한다.

7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애기어머니들의 출근시간이 점점 더 빨라졌던것이다. 대신 퇴근시간은 늦어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순회길을 한번이라도 더 달리고싶어, 한톨의 씨이라도 더 짜고싶어 쉼게 기대를 떠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것은 아마도 락아소의 보육원들일것이다. 언제나 반겨 기다리는 락아소의 불빛, 그것은 애기어머니들을 혁신에로 떠밀어주는 고마운 어머니의 눈빛과도 같다.

사파알처럼 동글동글한 어린이들이 구김살없이 뛰여노는 어느 한 방에서 우리는 두 아들을 락아소에 맡겨 키운다는 한 애기어머니를 만났다. 락아소가 있어 마음을 푹 놓고 일한다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생각은 깊어졌다.

방직공장은 락아소와 유치원이 있어야 어린이를 가지고있는 녀성들이 공장에 나와 일을 마음놓고 할수 있다고 하시며 방직공장건설을 지도해주시던 그 나날에도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몸소 제일 좋은 곳에 락아소자리를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장난감도 놀이터도 없이 어른들의 함숙 아래방에서 동거살이를 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주지 못하는것이 너무도 가슴에 걸리시여 전쟁을 이기고 나라없던 그 세월 자본가와 잠복놈의 눈을 피하여 불개미떼 달려드는 수풀속에 갓난애기를 나무잎으로 가리워놓고 일할 때 어머니의 그 찢어지는듯한 심정을 무엇으로 다 형언하며 배고파 우는 사랑하는 자식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젖을 먹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가슴만 쥐여뜯군 하던 그 참상을 어찌 다 그려낼수 있으랴.

우리 수령님의 품, 당의 품이 없었더라면 어찌 천리마시대를 뒤흔든 애기어머니작업반이 태여날수 있었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찌릿해질수록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무심히 들려오지 않았다. 그 웃음소리에 실려 자력자강의 동음높은 일터마다에서 충정의 70일전투기폭장을 안고 당 제7차대회장에 펏펏이 들어서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어머니들의 발자욱소리가 막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럴수록 보육원들이 지지마다 자랑하던 애기어머니혁신자들을 만나보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건방종합직장 직포공들인 김성심, 신은별, 직포종합직장 직포공들인 남향미, 김은미, 김옥화, 차선애, 방직종합직장 정방공 박경옥…

지난 7일까지 상반년계획완수자는 4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가 넘는 폭발적인 기록이다.

공장이 자랑하는 올해 첫 년간계획완수자, 그는 로력영웅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선군시대공로자 문강순동무이다. 선군시대공로자이며 공훈방직공인 리명순동무도 지금 상반년계획을 완수하고 만리마를 한 기세로 내달리고있다. 강조할것은 그들이 다 애기어머니들이라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첫 애기어머니작업반이 태여난 곳에서 70일전투의 포성과 더불어 늘어나는 애기어머니혁신자들, 그들은 비록 만나볼수 없었지만 우리의 눈앞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통근뻐스를 타고 귀여운 아기와 함께 퇴근길에 오를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선히 그려졌다.

본사기자 조향선

평양시 청년대학생들의 취주악대경연 진행

평양시 청년대학생들의 취주악대경연이 6일 김일성광장과 평양체육관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연에서는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조선청년행진곡》,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곡목들이 주악되였다.

참가자들은 독창적인 청년운동사상과 락월한 령도로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로 키워주시고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취주악의 선률에 담아 펼쳐갔다.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위용을 떨치며 승리의 5월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구름소리인양 《청춘과 용감성》,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 《전선행렬차》의 경쾌하면서도 박력있는 주악들이 련이어 울려퍼지였다.

청년대학생들의 혁명적기상과 랑만이 차넘치는 경연장소들에서 각계층 관중들은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충정다해 받들어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전세대 청년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백두의 칼바람에 불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강철의 청년대군이 있어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안았다.

평양시 청년대학생들의 취주악대경연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최첨단돌파의 과학기술성과, 전례없는 기적창조의 로력적위훈을 아로새겨갈 백두청춘들의 철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날 경연에 참가한 청년대학생들은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장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개건공사장 등에 달려나가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건설자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타격전방에서 요구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다발적, 련발적으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지적제품생산 적극 추동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는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의 승리를 과학기술로 담보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농업과학자들의 심장마다를 드높은 투쟁열, 혁명열로 더욱 세차게 고동치게 하고있다.

올해 농업생산에서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중요대상과제들을 맡고있는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누구보다 많은 일감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로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을 애국의 마음을 안고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종자로 틀어쥐고 연구사업을 특적지향성있게,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농업화학화연구소앞에는 70일전투기간 능력이 큰 현부제형종자피복제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고 수천t의 벼보판종합영양제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 과업에 대한 내각과 농업성 그리고 각지의 농업부문 일군들의 관심은 매우 크다.

지금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총력을 집중하여 이 중요과제들을 기한전에 무조건 결속하기 위해 결사전을 벌리고있다.

농업성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많은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밑에 이곳 과학자들이 정원농약공장에 새로 확립하고있는 종자피복제생산공정은 과학농사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종자가공공장들을 건설하고 모든 종자들을 정선, 선별, 피복처리까지 종합적으로 하여 협동농장들에 공급하는 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이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기간 종자의 싹트는률을 95%이상, 줄병이를 비롯한 땅속해충의 구제률을 85%이상 보장하면서 정보당 수확고를 10% 높일수 있는 수화제형의 강냉이종자피복제를 개발생산함으로써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번에 새로 꾸리고있는 공정은 종전의 수화제형과는 달리 생산과정에 유해로운 먼지가 날리지 않고 값비싼 용매도 쓰지 않는것으로 하여 로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원가도 낮출수 있을뿐아니라 그 효능과 과학기술적수준이 더 높은 새로운 형태의 현부제형종자피복제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현부제형종자피복제의 우월성과 경제적효과성은 지난해에 시험적인 도입과정에 확증되였다.

소장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치영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 현부제형종자피복제를 올해농사에서부터 넓은 생산면적에 도입하기 위하여 초기의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새로운 생산공정확립을 끝냈으로써 씨루리는 시키 전까지 20만정보분에 해당한 종자피복제를 생산하도록 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신장 김상혁, 연구사 리정국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지금 현지에서 공정확립과 시운전, 생산을 보장하면서 공업적생산규모에서 현부제형종자피복제의 점도를 최대한 낮추고 값비싼 수입제품을 대신할수 있는 분산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동시에 립체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연구소과학자들의 헌신의 자욱은 벼보판종합영양제생산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도 새겨지고있다.

이곳에서는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나라의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뚜렷한 실적을 내기 위하여 농업성과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공장의 일군들, 로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와 창조적협조밑에 최혁, 정해선, 강성애, 신춘금, 김송희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깨끗한 량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바쳐가며 벼보판종합영양제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벼보판종합영양제의 효과성은 이미 최근 몇해동안에 확증되여 지난해에는 그 연구도입에서 성과를 낸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도 수여되였다.

과학자들은 올해의 벼농사에서도 이것이 최대로 은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유효성분함량이 수시로 변하는 여러가지 원료에 대한 검사로부터 그에 따르는 생산조직, 생산된 제품의 질검사와 효과성검정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그리하여 벼보판씨루리기전으로 전국적인 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질좋은 벼보판종합영양제를 생산하여 제때에 농장들에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나가고있다.

과학자들과 현지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결사의 투쟁에 의하여 70일전투에 진입하여서는 그 전보다 하루에 10-20t을 더 생산하기 위한 목표가 수행되고있다. 이렇게 나가면 3월말까지 계획된 량의 벼보판종합영양제생산을 전부 끝낼수 있다고 한다.

나라의 쌀독을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립장을 안고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애끗한 량심과 피타는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농업화학화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투쟁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농업과학원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이 안속있는 조직정치사업으로 이곳 과학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주타격전방으로 정해주신 농업전선에는 바로 이런 미더운 농업과학자들도 서있다.

글 본사기자 리명희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다수확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간다

숙천농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합니다.》

력사적인 70일전투와 더불어 평안남도안의 농업부문이 새로운 기준창조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숙천군이 과학농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다수확을 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리는데 발맞추어 모든 시, 군들에서 과학농사의 된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여기에서 숙천농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안주시에 달려나간 작물재배연구실 실장 방청호동무의 사업을 놓고서도 이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방청호동무는 현지에 도착한 즉시 해당 일군과 함께 시안의 농장들을 차례로 돌면서 농사대책안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으며 올해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토양별품종배치와 모형태, 포기수와 비료시비량, 시비방법, 모내는 시기 등을 다시금 과학적으로 확정해주었다. 이와 함께 시적으로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는 저수확지의 특징과 소출이 낮은 원인, 안전한 수확을 내기 위한 방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특히 밭에서 점두법, 점세법, 점네법농사를 진행하여 정보당 15t이상의 소출을 거두기 위한 대책안은 저수확지를 다수확지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방청호동무는 일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조속에 시안의 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과학농사보여주기와 과학기술강습에 출연하였다.

종자소비는 철전 적으면서도 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새로운 밀보리단지재배방법과 감자진싹모재배방법에 대한 보여주기와 올해 시안의 농장들에서 진행하는 원그루큰모와 이른큰모재배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과 구체적인 대책들을 취급한 과학기술강습은 거기에 반영된 과학기술적내용들을 참가자들이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할수 있도록 진행된것으로 하여 올해 과학농사실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이 과정에 다수확의 기본열쇠는 앞선 영농방법과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토지의 리용률과 농작물재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한 안주시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농업과학자들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70일전투승리의 확고한 담보와 올해 다수확실현의 밝은 전망을 마련해나가고있다.

안주시뿐이 아니다. 박사원 지도교원 김경철, 유기농법연구실 연구사 박사 배원철, 신광철, 작물재배연구실 연구사 리명철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달려나간 시, 군들에서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농사작전을 과학화하며 시기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적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우기 위한 사업들이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새 기준창조를 과학기술적으로 떠밀어주기 위한 사업은 비단 현장에서만 진행되고있지 않다. 대학안에서도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학장 정영길, 과학부학장 윤혁철, 과학연구과 과장 송광로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70일전투목표를 새 기준창조와 결부하여 높이 세우고 올해농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논벼와 강냉이, 남새농사에서 높은 소출을 내게 하는 성장촉진제를 우리 식으로 추출해낸데 이어 적용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농업생산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옥종 및 채종학강좌 교원 조은철동무, 섬유소분해능력이 높은 미생물과 토양의 지력을 개선하며 질소고정능력이 높은 미생물들을 분리, 배양하여 도안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는 과학연구과 부원 강세성동무, 온실남새생산을 당이 바라는 수준에로 끌어올리는데 적극 기여할수 있는 성장촉진제를 우리 식으로 실용화하여 짧은 기간안에 확대도입전망을 열어놓을 높은 목표를 내세운 작물학강좌 교원 리광진동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농사에서 기어이 통장훈을 부를 일념과 만만한 투지를 안고 언제나 농업근로자들과 한진호에 서있는 이런 과학자들이 있기에 이 땅우에는 머지않아 황금벌의 눈부신 바다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철웅

결사전—4배이상의 천연생물활성제를

지난 한해의 생산량보다 4배이상 되는 천연생물활성제를 70일동안에!

이것은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고려생물약연구집단이 내세운 총정의 70일전투목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에 우리 당은 농업전선도 과학전선도 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실장 공훈과학자 유선옥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천연자원을 리용하여 만든 이 천연생물활성제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탄닌, 쿠마린, 사포닌, 정유를 비롯한 성분들과 질소, 린, 카리, 규소, 유황, 마그네시움과 같은 다량원소들은 물론 붕소, 아연과 같은 미량원소 그리고 비타민, 아미노산 등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이 조화롭게 들어있는 다기능적인 무공해천연록색활성제이다.

사람들과 동식물들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식물의 빛합성능력과 뿌리활성을 높여주는 이 생물비료는 가물피해와 랭해를 막는데 좋을뿐아니라 탄저병, 흰잎마름병, 뿌리썩음병, 떡잎병 등의 피해를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가물때나 농작물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삭패기가 늦어질 때 등의 경우에 이 천연생물활성제 1~2kg을 500~1 000배의 물에 풀어 1정보의 포전에 잎덧비료로 여러번 분무해주면 화학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알곡작물 특히 남새작물의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다고 한다.

버섯기르기와 딸기재배 등에도 아주 좋다는것이 리용자들의 평가이다.

지난해에 각지의 수만정보에 달하는 생산면적에 도입되여 농업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커다란 호평을 받은 이 천연생물활성제에 대한 수요는 뜻깊은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떨쳐나선 농업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급속히 늘어났다.

과학자들은 깨끗한 과학적량심을 안고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더 많은 단위들에서 더 많은 면적에 도입할수 있게 종전보다 그 원가를 절반으로 줄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였다.

방대하고 높은 70일전투목표를 세운 이곳 연구집단의 력량과 생산규모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것이 없다. 이런 조건에서 보통의 각오로써는 엄두도 낼수 없는 목표를 놓고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물음도 제기되였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 사회주의전초선으로 다같이 중시하고있는 과학전선과 농업전선의 기수, 전초병이라는 숭고한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있는 실장 유선옥, 연구사들인 허인철, 송형진, 김인철동무들 그리고 김은주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들, 종업원들에게는 오직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하나의 대답만이 있을뿐이다.

이들은 높이 세운 목표를 향하여 70일전투의 출발선을 주저없이 떠났다. 지금 이들은 천연생물활성제생산을 일정계획대로 내밀고 동시에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다같이 추진시키면서 철야전투를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70일전투목표로 계획한 량의 거의 절반을 생산하여 평양시와 량강도, 강원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여러 도의 많은 단위들에 보내주었다.

매일매일의 생산실적을 놓고 자기들의 탁월한 량심을 검증받으며 70일전투의 순간순간을 빛나는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고려생물약연구집단의 결사의 노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의 농업생산성과를 과학기술로써 안받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것이다.

본사기자

높은 수준의 농업정보화를 지향하는 포전기상관측체계

70일전투기간에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에서 힘을 넣고있는 목표의 하나가 있다.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보다 높이는데 이바지하게 될 특색있고 효과적인 정보기술제품인 포전기상관측체계의 도입과제이다.

이 포전기상관측체계는 실장 공훈과학자 박사 한무광, 연구사들인 최정혁, 고영진, 홍을남, 서광혁동무들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내놓은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다종다양한 자동기상관측체계들이 연구개발되여 과학연구와 환경감시, 농업 및 림업기상관측 등 여러 부문에서 광범히 쓰이고있다고 한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포전들에 이러한 기상관측체계를 세우고 농작물과 과일나무의 생육예보와 병해충예보에 널리 리용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보다 과학화, 현대화하고있다.

이 체계도입으로 얻어지는 실리가 큰것으로 하여 각종 포전기상관측체계들이 상품화되고있다고 한다.

111호제작소의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세계적인 추세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보다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 과정에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포전기상관측체계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우리 식으로 연구제작된 포전기상관측체계는 해당 포전의 대기온도와 습도, 이슬점, 해비침도, 강수량, 바람의 속도와 방향과 같은 기상조건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관측하는 체계로서 크게 수감부, 기상자료기록기, 휴대용기상자료수집기, 전원단으로 이루어져있다.

기상자료기록기는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빛수감부들과 우량계, 풍향풍속계와 같은 장치들에서 받은 측정값으로부터 대기온도와 상대습도, 이슬점, 해비침도, 강수량을 계산하고 기록하며 관측된 자료를 콤퓨터에 전송하거나 무선으로 휴대용자료수집기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무선통신거리는 100~200m정도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더 늘일수도 있다고 한다. 휴대용기상자료수집기는 무선으로 기상자료기록기들의 기상관측상태를 감시하며 기록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여 콤퓨터와 대면할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과학자들은 연구사업과정에 기상자료기록기와 휴대용자료수집기를 설계제작하고 해당한 수감신호에 기초하여 온도와 습도, 이슬점, 해비침도, 강수량을 정확히 측정현시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작성하고 프로그람작으로 실현하는 문제와 우량계를 만들고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교정방법을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우리 과학자들이 설계제작한 포전기상관측체계의 기술적성능은 현장도입시험과정에 충분히 확증되였으며 제작비용도 세계적으로 상품화되고있는 관측체계의 최소한도가격의 1/3이하밖에 안된다고 한다.

지금 111호제작소에서는 포전기상관측체계의 성능을 보다 높이고 농업부문은 물론 산림부문의 양묘장들과 온실 등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농업전선을 지켜 기발들고 나아가는 녀성혁명가들

청단군당일군가족소대원들의 투쟁을 놓고

당일군가족의 모습은 당일군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따라서 그들의 역할문제는 해당 단위 당조직의 사업권위와 전투력을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청단군당위원회가 오늘 대중의 신망이 높고 전투력이 강한 당조직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은 바로 그뒤에 군당일군가족소대원들이 서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사회활동에 널리 인입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기발들고 나가는 이곳 군당일군가족소대원들의 삶과 투쟁의 갈피갈피를 떠지며 우리는 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헌신적인 투쟁기풍이 군의 전반사업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있는가를 절감하게 된다.

뿌리가 되자

청단군당 책임비서로 임명되여온 김성철동무의 가족이 군에 이사온지 며칠이 지난 4년전 3월 어느날 밤, 그의 집에서는 부부간에 이런 말이 무겁게 오고갔다.

《지금껏 유치원교양원을 해온 당신이 여기 와서도 그 일을 한다고 아마 탓할 사람은 없을거요. 그러나 나는…》

《여보, 그만하세요. 며칠째 꺼내기 힘들어하는 그 말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난 결심했어요. 다만 생소한 농사일이어서 짐이 될까봐 그게 걱정될뿐이예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뜨거워졌다. 그토록 사랑하던 직업과 결별한다는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닌것이다. 그것도 가장 힘겨운 농사일을 선택한다는것은 더욱더 그렇다.

《고맙소!》

남편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김명희동무는 그 세글자를 남편의 믿음이기 전에 당조직의 믿음으로 무겁게 새겨안았다.

책임비서의 안해가 농촌에 진출한다는 말은 순식간에 퍼져 군당일군들과 그 가족들속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책임비서의 집으로 군당일군가족들이 줄줄이 찾아와 김명희동무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이렇게 되여 군당위원회에서는 그들의 열렬한 지향에 맞게 가족모임을 열고 70여명의 군당일군가족들로 소대를 무어 농촌에 진출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군당위원회일군인 정광일동무의 안해 김창숙동무를 소대장으로, 책임비서의 안해 김명희동무를 당세포비서로 한 가족소대에 붉은기를 수여하였다.

이렇게 첫걸음을 뗐다.

결심이 큰것만큼 목표도 컸다. 목표가 큰것만큼 시련도 많았다.

각이한 직업과 직종에서 일하던 녀성들이어서 농사일은 실로 힘에 부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시련이 앞에 놓여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담당한 포전문제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했다.

농장에서는 농사일이 생소한 가족소대를 위해 지력이 제일 높은 포전을 골라서 주자고 하는데 김명희동무가 부디 농장적으로 제일 다루기 힘든 땅을 달라고 주장했기때문이였다.

나쁜 땅을 맡았다가 수확을 적게 내면 오히려 남편들의 얼굴에 흙칠하는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농사일이 손에 익을 때까지만이라도 좋은 땅을 다루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 남편들의 도움을 받으면 크게 어려울것이 없을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김명희동무는 농사일보다 더 어려운것이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그것은 자신을 이겨내는것이였다.

그는 소대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안타까운 심정을 터놓았다.

우리가 농촌에 진출한것은 그 어떤 명예나 그 누구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다.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충직하게 받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 땅에 곡식을 심기 전에 량심을 먼저 심자. 그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뿌리를 억세게 내리자.

소대원들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붉게 상기된 그들의 얼굴에서 떡마디를 대신하는 새내기 위해 그들은 낮도 밤도 몰랐다. 지난날엔 역한 냄새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며 피하던 그것을 귀중한 보배처럼 안고 포전으로 달렸다.

땅은 속이지 못한다. 봄내, 여름내 쏟아부은 이런 헌신의 땀방울이 그대로 알알이 낟알로 여물었는가 정보당 3t도 내지 못하던 밭에서 8t이 넘는 전례없는 장령이작황이 새 주인들앞에 펼쳐졌다. 그것도 컸지만 보다는 소대원들이 실천을 통해 자신을 이기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성장한것이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작황》이였다.

한해농사와 함께 몰라보게 성장한 소대원들은 다음해에는 대풍협동농장 제1작업반의 10정보 저수확논을 맡아나섰다.

피땀으로 절근 살붙이갔은 포전과 헤여지기란 참으로 힘들었다. 오죽했으면 눈물을 흘리는 소대원들까지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또다시 나쁜 땅을 선택했다. 해마다 큰 물피해로 거의 무수확을 내군하여 실농군들도 머리를 흔드는 땅이였다.

억센 뿌리는 땅을 가리지 않는다.

이번에는 힘이 곱절로 든다는 논농사였다. 하지만 그들은 초인간적인 힘을 폭발시켰다. 그것은 단순히 땀이 아니라 량심이였고 사랑이였다.

얼마나 뜨거운 사연, 가슴아픈 사연이 새겨진 날과 달들이였던가.

모내기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모춤을 전채로 의식잃고 쓰러진 소대장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던 일이며 손가락이 터져 삼복철에도 두툼한 장갑을 끼고 100여t의 물을 베여 군이 생겨 처음 보는 《물산》을 만들었다는 사실, 큰물로 10여일간이나 포전의 물이 빠지지 않아 비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았다는 일화를 비롯하여 그들의 비상한 의지와 불같은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바로 그 마음, 그 열정이 또다시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안아왔다.

선구자가 되자

이곳 군당일군가족소대를 농사일을 잘하는 실농군부대라고만 하면 그것은 정확한 평가가 못된다.

그들은 단순히 건장한 농촌로력문제를 풀기 위한 보충로력이 아니였다.

모든 면에서 기발들고 나가는 선구자집단!

이것이 군당일군가족소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라는것을 우리는 위대과정에 느끼게 되였다.

그들은 농촌진출의 선구자들이였다.

그들의 뒤를 따라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검찰소, 군인민보안서를 비롯한 군급기관들에서 가족소대, 가족분조들이 조직되여 농촌으로 진출하였던것이다.

이것은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인민들의 농사에 대한 관점을 바로잡아주는 위력한 정치사업이 되여 온 군에 농사를 중시하는 열풍을 몰아왔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선구자들이였다.

군당위원회가 키잡이를 잘하였다.

《동무들은 단순히 로력부대가 아니라 군당사업을 함께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소대원들은 군당책임일군의 이 말의 참뜻을 깊이 새기고 선구자의 기발을 높이 추켜들었다.

구암—룡포물길공사를 비롯한 군에서 중시하고 내미는 모든 전투의 맨 앞장에는 군당일군가족소대원들이 서있었고 가족소대의 기발이 세차게 나붓겼다.

군에서 진행하는 예술공연, 대중체육을 비롯한 군중문화활동에서도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는 기준단위, 본보기단위로 되였다.

인민군대원호사업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에서도 언제나 앞장섰다.

특류영예군인 심철구동무의 집에 들려보아도, 부모없은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있는 우선옥녀성의 집에 들려보아도 혈육의 정을 안고 때없이 찾아와 돌봐주는 가족소대원들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실로 군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군당일군가족소대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야기가 끝없이 흘러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선구자는 언제나 힘든 길을 걷는 법이다.

그들도 녀성들이고 가정주부들이며 어머니들이기에 화려한 옷을 떨쳐입고 거리에도 나서고싶고 가족들과 함께 한상에 마주앉아 웃음꽃도 피우고싶으며 명절이나 일요일에 귀여운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들놀이도 가고싶을것이다.

하지만 일년열두달 장화를 벗을새 없었고 부뚜막에 홀로 앉아 밥을 먹어야 했으며 언제나 잠자는 자식들의 얼굴만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니 그들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그 누가 알랴. 그것은 하늘의 별들만이 안다.

그렇다.

농사일에서도 중요대상건설에서도 군중문화활동에서도, 원호사업, 지원사업을 비롯한 비롯을 꽃피우는데서도 아니 모든 사업에서 선구자가 되여온 군을 불러일으키는 군당일군가족소대야말로 군당위원회의 또 하나의 위력한 선전선동력량이였다.

그들은 오늘도 당 제7차대회를 향한 70일전투의 앞장에서 드세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청단군당일군가족소대원들처럼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기발들고 나가는 선구자로 값높은 삶을 빛내일 때 전국의 모든 시, 군당조직들의 사업권위와 전투력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철

민족반역을 일삼는 만고역적 박근혜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전쟁미치광이들의 어리석은 광란

조선반도에 또다시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다. 년초부터 날과 달을 이어오며 그칠새없이 감행된 내외호전광들의 반공화국전쟁책동은 7일부터 감행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으로 최절정에 이르게 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와 합법적인 위성발사를 걸고들며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해낸데 이어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감행해나서는것은 가뜩이나 팽팽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위험천만한 폭발국면에로 걷잡을수 없이 떠밀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분별해지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도발책동은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지금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는 북침에 환장하여 미성잃고 날뛰는 전쟁미치광이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엄중히 유린하고 핵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모험적망동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감행하는 온갖 군사적도발과 침략책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오랜 세월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 시달려온 우리 겨레는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북침야망에 사로잡혀 해마다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림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정세를 바싹 긴장시키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이번에 벌려놓는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제2의 조선전쟁,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배태하고있는 시한탄이다.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2만 7 000여명의 미제침략군과 30만여명에 달하는 괴뢰군의 방대한 병력, 추종국가군대들과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총동원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불장난이다. 특히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번 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정체를 명백히 드러내고있다.

내외호전광들은 지난 시기 이 불장난소동과 관련하여 상투적으로 내걸던 《방어》와 《년례적훈련》의 간판을 내던지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 《대북군사적압박》을 공공연히 떠들고있다. 호전광들은 특수전무력의 대대적투입이니, 《공로무기의 총출동》이니, 북의 전지역에 대한 《점령》이니 하고 괴대를 돋구면서 연습에 투입된 전쟁장비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등으로 우리를 로골적으로 위협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 극단적인 전쟁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고 나아가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내외호전광들의 흉악한 계책의 산물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도발자,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폭로해주고있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가뜩이나 과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완전히 절딴내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북남관계의 개선은 온 민족의 지향이며 조국통일의 전제이다.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변함없는 립장과 의지를 안고 어떤 정세하에서도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 알아들으리만큼 경고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압살야망에 물젖은 박근혜패당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면서 북남사이에 어렵게 이룩되였던 합의마저 서슴없이 배신하고 반공화국도발의 도수를 더욱 높이여왔다. 특히 최근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와 합법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들며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역적패당은 유엔에서는 반공화국《제재결의》채택의 땐 앞장에서 날뛰였는가 하면 제 집안에서는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는 극악한 동족대결악법인 《테로방지법》과 《북인권법》을 끝끝내 조작하였다. 한편 그 무슨 《북의 핵, 미싸일위협》이라는것을 구실로 미국과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인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위한 공식협의놀음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북남관계의 이런 험악한 실태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7. 4 공동성명발표 이전수준으로 돌아간 남북관계》라고 하면서 실망과 울분을 터치고있다.

온 겨레가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해 우려와 불안을 금치 못하고있는 때에 오로지 대결광신자들인 박근혜역적패당만은 꼬물만 한 죄의식도 없이 그 누구에 대한 《압박강화》니, 《강력한 대응》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외세의 북침장단에 정신없이 맞장구를 치고있다.

사상 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기필코 북남관계를 전쟁발발직전의 최극단에로 몰아가게 될것이다. 괴뢰역적패당이 북남관계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의 불을 지피고있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대결정책실현의 희생물로 삼는 극악한 반역죄악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패당이야말로 우리 겨레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천하의 역적무리, 첫째가는 타도대상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린하고 평화통일위업을 저해하는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책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

력사와 현실은 굴고한 평화는 강력한 통대우에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백승의 사상과 지략, 그 어떤 침략세력의 도전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수 있는 최강의 자위적군사력을 갖춘 무적의 강군이다. 지금 백두산혁명강군의 강위력한 전략 및 전술타격수단들은 도발자들의 광란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최후결전의 신호탄만 기다리고있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감히 허장성세하며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우리는 세기를 이어 다지고다져온 분노를 총폭발시켜 정의의 선제타격으로 침략과 도발의 아성을 재가루로 만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하고야말것이다.

호전광들은 군사적위협이나 압력으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드는것이 과녁을 알탕기는 무모한 망동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자멸의 함정을 파는 전쟁미치광이들의 어리석은 광란이다.

은 정 철

《테로방지》를 짖어대는 암사냥개

《유신》독재가 되살아나 폭압의 광풍이 스산하게 몰아치는 남조선에서 또 하나의 파쑈악법이 조작되여 온 남조선땅이 분노의 도가니로 끓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2일 박근혜역도는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테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새누리당》을 내몰아 《국회》에서 《테로방지법》을 끝끝내 강압통과시키였다. 괴뢰역도가 우리를 걸고 《테로방지법》을 꾸며낸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기 위한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인 동시에 진보민주세력들을 《테로세력》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위한 극악한 파쑈적망동이다.

이번에 괴뢰국회에서 통과된 《테로방지법》이라는것은 남조선법제사상 그 류례가 없는 경악스러운 악법이다. 집회와 시위 등 안보에 저촉된다고 보는 모든 움직임을 《테로》로 규정하고 그에 정보원이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대처한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이에 따라 괴뢰정보원은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민간인들 지어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은밀한 감시망을 펼치고 그들의 일거일동을 추적하며 폭압의 마수를 뻗칠수 있게 되였다.

이런 전대미문의 악법이 조작된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재난이 아닐수 없다. 괴뢰보수패당이 반역통치에 항거해나서는 각계의 그 어떤 투쟁도 《테로대비》라는 민능의 간판을 내걸고 닥치는대로 란압말살할수 있는 법적발판을 닦았기때문이다. 남조선 각계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테로방지법》에 따르면 사실상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

원래 《테로방지법》은 지난 2001년 괴뢰국회에서 발의되자마자 각계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에 부딪쳐 종당에는 휴지통에 구겨박히고말았었다. 그런데 박근혜패당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와 합법적인 우주개발권리행사를 력대고 사회전반에 《테로》공포증을 일으키면서 끝끝내 이 악법을 꾸며내고야말았다. 역시 반공화국대결과 파쑈폭압, 정치적모략으로 잔명을 부지하는 박근혜의 고질적악습은 갈데 없다.

박근혜가 《유신》독재자의 파쑈적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흉악무도한 정치깡패라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악녀가 반역《정권》의 위기가 극도에 달한 《유신》독재후예로서의 추악한 몰골을 드러낸것이다.

최근 박근혜패당은 미국에 추종하며 유엔의 반공화국《제재결의》조작에 분별없이 나섰다가 남조선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만 받고 실로 가련한 처지에 빠지였다. 더우기 로동개악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각계의 강력한 반발로 역도의 집권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나날이 고립되고 파멸의 나락으로 몰리우는데 다급해난 괴뢰역도는 민심의 이목을 북남대결에로 돌리고 독재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테로방지법》 조작에 눈독을 들이며 그 실현에 치마를 걷어올리고 나섰다. 제 애비의 본때대로 정보원을 내세워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란압하는 제2의 《유신》암흑기를 불아음으로써 이땅에 하나 집권말기를 지탱하고 보수《정권》을 무한정 연장하자는것이 역도의 속심이다.

청와대의 암사냥개가 미친듯이 날치는 속에 화만 입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다. 《보안법》을 릉가하는 《테로방지법》의 등장으로 진보민주세력은 《종북》모자에 이어 《테로분자》감투까지 쓰고 걸음걸음 류례없는 란압과 박해속에 사상과 리념, 정치활동의 자유를 송두리채 박탈당하게 될것이다. 《테로방지》의 미명하에 벌어지는 파쑈광들의 무차별적인 사찰소동으로 남조선이 민중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여지없이 유린당하는 철저한 인권불모지로 전락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 각계가 《테로방지법》을 《제2의 보안법》, 박정희역도시기의 《긴급조치》의 복사판으로 락인하면서 분노의 함성을 높이고있는것은 실로 당연하다.

사태는 우리를 터무니없이 모해하며 독재와 인권유린의 피비린 흉칼망동으로 진보민주세력을 모조리 짓밟고 그 무덤우에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발악하는 극악무도한 동족대결광, 보기 드문 파쑈깡패의 흉악한 몰골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파쑈와 독재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독재는 결코 만능이 아니며 멸망의 위기에 처한자들의 최후발광일뿐이다.

박근혜역도는 아무리 동족대결과 파쑈독재에 매달려도 이미 기울어진 운명을 절대로 건질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라 설 하

《방어훈련》의 허울마저 벗어던진 극단적이고 도발적인 무력시위

남조선시민사회단체들 강력히 항의

【평양 3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사상 최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소동을 규탄하여 남조선의 시민사회정화련대회의가 5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전쟁연습 중단!》, 《평화가 민생이다!》, 《평화협정체결!》, 《평화정책실패 박근혜정부규탄!》 등의 대형현수막들을 들고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사상 최대규모의 핵무력이 동원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북을 겨냥한 호전성이 매우 심각한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이 더욱 고조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핵항공모함들과 해년보다 엄청나게 증강된 미군병력, 추가투입되는 전투기들, 스텔스전투함 등을 포함하여 력대 최대규모의 미군무력이 동원된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호전광들이 북에 대한 선제공격의 성격이 강한 《작전계획 5015》를 기반으로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밝힌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그동안 형식적으로나마 표방했던 《방어훈련》의 허울마저 벗어던진 극단적이고 도발적인 무력시위라고 규탄하였다.

특수부대들까지 들이밀어 《정양진격훈련》, 《참수작전훈련》 등을 감행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핵전쟁의 참화가 빚어질수 있는 심각한 국면이 조성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런 국면속에서도 박근혜《정부》가 《북인권법》조작 등 동족적대시책동에 계속 매달리면서 위기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길로 나가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벌리는 위험천만한 전쟁소동은 당장 중단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북침전쟁연습책동의 중지를 요구하며 시위투쟁을 벌렸다.

추악한 매국역적의 집권 3년간 죄악을 고발한다 (6)

세계최악의 녀성천시, 녀성학대의 란무장

현 괴뢰집권자의 집권 3년간 죄악을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부디 하나둘씩이라면 절대로 배놓을수 없는것이 있으니 바로 녀성의 탈을 쓰고 온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녀성천시, 녀성학대의 란무장으로 만든 박근혜의 죄악이다.

3. 8국제부녀절을 맞이한 이 아침 내 나라의 거리는 우리 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온갖 기쁨을 다 누리는 녀성들의 행복한 얼굴들로 하여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있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이 아무리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와도 가정의 다심한 주부로, 훌륭한 어머니로, 당당한 녀성혁명가로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는 우리 녀성들의 얼굴에서는 한점의 그늘도 찾아볼수 없다.

그러나 추악한 매국역적이 《대통령》감투를 쓰고있는 남조선을 보라. 가정의 사랑과 사회의 우대를 받아야 할 녀성들이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고 천대와 멸시, 학대속에 온갖 불행과 재난을 강요당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자기를 《준비된 녀성대통령》으로 팔고하며 당선되면 《녀성정책을 핵심》으로 삼겠다고 찰떡같이 공약하였었다.

하지만 개꼬리 3년 가도 황모 못된다고 배속에서 타고난 역도의 그 뻐뜰어지고 천박한 녀성관이 달라질수 있겠는가.

박근혜는 집권후 나약함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녀성이라는 말을 꺼내기 제일 싫어하였고 지금까지 녀성들을 만나 녀성인권문제를 따로 론의한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역도가 그 무슨 《녀성교원시간선택제》, 《미혼 녀성인재 10만양성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녀성관련정책들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하늘로 날아가버리고말았다. 이로부터 남조선각계는 집권자의 녀성관련정책들을 《생색내기 빈 공약》이라고 한결같이 비난하였다.

녀성이라면 누구나 어머니가 되고싶어한다. 귀여운 자식을 낳아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고싶어하는것이 녀성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러나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 이 악녀는 녀성들의 이 신성한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녀성들의 해산률감소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녀성들의 해산률은 세계적으로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그것은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있다고 한다.

괴뢰집권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녀성차별도 없어진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녀성천시풍조가 날로 더욱 만연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녀성취업률이 해마다 낮아지고있으며 그나마 녀성로동자의 80%이상이 로동조건이 매우 한심한 시간제일자리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있다. 그중 30%는 단시간로동자라는 리유로 보험금, 퇴직금 등도 받을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다.

남조선녀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남녀임금격차는 근 40%에 달하며 기업주들은 로동력상실을 막는다고 하면서 녀성로동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아이를 낳게 강요하고있다. 이로 하여 수많은 녀성들이 하는수없이 직업을 포기하고있다. 해고의 첫째가는 대상도 녀성들이다. 매해 4 000~5 000명의 녀성로동자들이 산전산후휴가중 직장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되고있다. 결혼, 임신, 해산 등을 리유로 일자리를 빼앗긴 녀성은 2015년 4월현재 무려 205만 3 000명에 달한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직장들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해마다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녀성로동자의 대부분은 생산현장과 회사들에서 술시중, 신체롱락, 성적모욕 등을 강요당하면서 치욕속에 몸부림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녀성의 지위 세계최하위》, 《녀성차별의 세계적교실》, 《손상되는 녀성존엄》이라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런 녀성인권의 처참한 폐허에서 녀성들이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신성한 의무를 포기하고 타락과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녀성범죄건수가 년간 30여만건으로서 총 범죄건수의 16%를 차지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 한 녀성이 일가족 4명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사건과 생활상고통을 못이겨 어머니가 2살도 안된 어린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죽인것과 같은 극단적인 녀성범죄사건들이 계속 늘어나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조선에서 녀성범죄가 늘어나고있는 주요원인은 악화되는 생활난, 자녀양육부담이라고 평하면서 녀성들의 불행과 고통을 증대시키는 현 괴뢰집권자의 반역정책을 이구동성으로 비난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녀성《대통령》을 맞이하였지만 녀성인권에 대해 말하기에는 갈길이 멀고 실망이 너무도 크다.》는 저주와 울분에 찬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녀성들을 한갓 성노리개로, 사회의 부속품로 취급하는 썩어빠진 괴뢰통치제도와 추악한 박근혜역도와 같은 반역무리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는 한 언제 가도 남조선녀성들은 참다운 녀성의 권리를 누릴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녀성들은 녀성의 권리와 생존권을 랭혹하게 짓밟으며 자신들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반역《정권》을 증오에 차서 단죄규탄하며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다.

투쟁으로 녀성천시《정권》, 녀성학대《정권》을 갈아엎자. 이것이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현 괴뢰집권자의 3년간 죄악에 분노한 남조선녀성들의 피타는 웨침이다.

잠 임 향

망하는 집안의 개싸움

망하는 놈의 집안에는 싸움도 잦은 법이다. 보기 드문 불통황초, 독재광 박근혜의 독단과 전횡으로 망조가 든 남조선에서 괴뢰보수패당의 집안싸움 또한 나날이 치렬해지고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찾아드는것은 재앙뿐인지라 우울증에 걸리고 성이 독같이 난 역도는 매일같이 신경질을 부리며 졸개들에게 쌍욕만 퍼붓고있다.

청와대안방주인의 이 변태적인 행악질에 비박계를 위주로 한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도리어 불질을 하면서 개싸움을 벌리고있다. 괴뢰집권자의 독기어린 치마바람에 불만을 터뜨리는 《새누리당》, 계파의 리익을 위해 서로 물고뜯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과 알륵은 그야말로 장판이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얼마전 박근혜는 자기가 내놓은 이른바 《개혁》관련법안들의 《국회》처리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있는데 화가 난 나머지 《자다가도 소스라쳐 일어날 통탄스러운 일》이라느니, 《고통스러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준비해놓고 환자에게 먹이려 하는데 〈국회〉가 막고있다.》느니 하고 책상까지 두들겨대며 악에 받쳐 고아댔다.

역도가 들고나온 《개혁》관련법안들이 근로민중의 명줄을 끊어버리는 사상 류례없는 악법들이라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그것을 놓고 《약》이니, 《환자》이니 하며 허튼 나발을 불어댄 역도도 뻔뻔스럽지만 청와대가 아무리 악을 써도 내 불장을 본다는 《새누리당》것들의 고집 또한 여간 아니다.

어쨌든 괴뢰집권자의 독살스러운 행동에는 《개혁》관련법안들을 《선거구획정법안》과 같이 처리하라는 자기의 요구를 귀동으로 흘려보내며 《선거구획정법안》처리에만 신경을 도사린 《새누리당》에 대한 그의 앙심이 깔려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최근 《새누리당》내에서는 집권자가 처리를 고대하는 《개혁》관련법안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나 사라졌다. 특히 당대표 김무성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전략공천》과 관련하여 친박계와 대판싸움을 치른 후 그 문제에 대해 좋은 침묵을 지키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김무성의 침묵이 청와대를 향한 《메세지》라고 하면서 이로 하여 《로동개혁 5대법안》, 경제관련법안 등의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내의 목소리가 잦아들고있다고 전하였다. 이를테면 《새누리당》에서 집권자를 위한 《후보등록성기》 하나가 꺼진셈이다. 이것은 《개혁》관련법안들의 《국회》처리를 들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립구도가 뚜렷해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새누리당》내부의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의 관계도 편안치 않다.

요즘 《새누리당》에서 《현역의원 40명 물갈이명단》이라는것이 나돌면서 반역당내부는 벌써부터 그런 말을 몇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알아보면 출처가 친박계였다고 하면서 이번 명단공개놀음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욱벼르고있다.

현재 명단에는 일부 친박계의원들이 올라있지만 비박계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자기들을 당내에서 밀어내기 위한 친박계의 《명분쌓기용》이라고 울분을 터치고있다.

《현역의원 40명 물갈이명단》과 관련하여 제일 발끈한것은 《새누리당》의 비박계핵심인물인 당대표 김무성이다.

사실 김무성은 최근 친박계인물인 리한구가 자기 패에 유리한 《전략공천》업무를 시작한것을 보면서도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그런데 친박계가 《물갈이》명단까지 공공연히 들고나오자 즉시 반발해나섰다. 그는 친박계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며 《전략공천》이 본격화되는 경우 그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도 마다하지 않을 강경한 립장을 취하였다. 다른 비박계배들도 《화가 나지 않을수 없다.》고 앙앙불락하면서 명단을 단호히 배격해나섰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새누리당》의 친박계는 리한구를 내세워 비박계를 달래기 시작하였다. 리한구는 명단에 오른 비박계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걱정하지 말라.》느니, 《달도 안되고 기분이 나르다.》느니 하며 한바탕 얼려댔다.

하지만 승냥이는 품속에서도 양무리를 생각한다고 당내주도권장악을 위해 비박계를 모조리 몰어내릴 생각에만 골몰하는 친박계가 총선거를 앞둔 지금에 와서 비박계를 생각한다는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비박계의 반발을 눅잦히고 안심시킨 다음 그 막뒤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석을 전부 친박계로 채우려는 속이 빤드름한 술책인것이다.

그런 유치한 놀음에 비박계패거리들이 넘어가려 하지 않는다는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권력욕에 환장하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가리지 않고 마구 물어뜯는 추악한 정치시정배들이 득실거리는 《새누리당》에서 친박계나 비박계나 기만과 사기협잡에 능먹기는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언론들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올수록 《새누리당》내부의 계파간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그것은 보수집권세력에게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미제와 괴뢰호전광들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 전면적으로 개시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세력이 7일부터 남조선 전지역에서 반공화국핵전쟁도발을 위한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천인공노할 《참수작전》과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공공연히 쪼아박은 극도의 로골적이며 모험적인 핵전쟁계획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미제침략군 2만 7 000여명과 남조선괴뢰군 30만여명, 추종국가군대들을 포함한 방대한 병력 그리고 《스테니스》호핵항공모함타격단, 《본홈 리차드》호상륙준비단, 《B-52》, 《B-2》핵전략폭격기들, 《F-22A》스텔스전투기, 사전잠비적재함선전단을 비롯한 미제의 각종 핵전쟁살인장비들이 총동원되여 북침공격목표를 향해 일제히 기동을 시작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전쟁연습을 시작하면서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미군의 핵심무력이 조선반도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단축하기 위한 연습, 《소국적방어》를 넘어 북의 중요시설들을 선제타격하고 북의 전반적령토에로 진격하는 연습이 사상 최대규모의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기본으로 된다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북침핵선제공격연습이라는 내외의 비말치는 항의규탄에 말로나마 《년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정당화하던 과렴치한 간판마저 톨딱 벗어던지고 조선반도의 핵위기를 폭발시킬 위험한 전쟁도박을 하려는 침략자들의 흉심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로동개악, 녀성차별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남조선로동단체 서울에서 반《정부》투쟁 전개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3. 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5일 서울광장에서 전지역의 녀성로동자들이 참가하는 집회를 가지고 녀성차별과 폭력중지, 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과를 괴뢰당국에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녀성들에게도 사회적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녀성로동자들의 요구가 지금도 실현되지 않고있다고 말하였다.

박근혜《정부》가 로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해고를 마음대로 하며 비정규직화하는 등 로동개악을 강행함으로 하여 녀성로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있다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로동개악은 녀성에게 더 낮은 일자리, 더 쉬운 해고, 더 적은 임금을 가져다줄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녀성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또한 《정부》가 일본과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로 녀성천시가 지배하는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면서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녀성에 대한 폭력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해결이 없이 오늘의 비참한 인권실태를 바로잡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정부》의 로동개악, 녀성차별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61038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